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은 실로 남을 이기는 것보다 낫다 오직 자기를 다루어 이겨라  
(《자오년 술전품 104집》)

# 東大新聞

발행처: 동국대학교 동대신문사  
100-714 서울시 중구 필동3가 26 (☎260-3492)  
FAX (02)279-1270  
780-714 경북 경주시 석장동 707 (☎770-2057)

제 1126호

(주간)

1964 1 1 등록번호 다-10  
1955 10 13 제3종우편물(가)급인자

The Dongguk University Press

1993년(단기4326년) 5월26일 (수요일)

【 1 】

## 학내 구성원 재단 자정 촉구

### 총학운영위 - 비상학생총회 통한 대중 투쟁 전개 결의 교수회·직원노조·석림회등 대책위 꾸리고 수습방안미련 부심

학생들의 본관점거농성이 한 달 가까이 진행되고 총학생회 사정특위를 통해 몇몇 재단이사들에 대한 비리폭로가 계속되는 가운데 학내사태의 본질적 해결을 위한 대안이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 17일 오후 4시 대학원강실에서 열린 총장, 부총장등 학교당국 관계자와 총학생회 간부들과의 면담에서는 그동안 총학생회가 1차 요구안으로 제시한 6개항에 대해 학교측의 답변이 진행됐다.

학교측은 행정대학원 강교수의 인사문제에 대해 '행정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인사에 있어 특정인에 대한 특혜가 있었음을 시인했으며 학생들의 요구대로 경주캠퍼스로의 원상복구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총장재직시 부정부패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상태에서 본교 휴직상태로 유지돼온 김교수수장은 김교수가 지난 3월에 제출한 휴직장영원을 학교에서 반려한 상태라고 말하며 '문제는 교수를 학교에 영입하지

않겠다'는 학교측의 입장을 밝혔다. 또한 지난해 등록금문제 합의 당시 학교측이 약속했던 재단전입금 10억추가 결과에 대한 학생들의 의혹제기에 대해 '교육부지원, 개인기부등으로 12억을 추가전입했다'고 밝혔으나 학생들의 '재단으로부터 전입금이 아니다'라는 문제제기로 마찰을 빚었다.

올해 등록금 합의문 복사사항 이행에 대해서도 학교측은 '재단이사회의 예산심의가 끝나지 않아 비용제정이 되지 못해 진행하지 못할 뿐이며 이사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이행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동국학술문화관 신축시 미술학과 기공식을 치르는 예산상의 문제로 난색을 표명해 미술학과 학생들과의 마찰이 우려된다.

총학생회측은 이날 면담에 관해 학교당국은 이번 사태의 근본원인에 대한 답변이나 대안제시는 회피한 채 학생들을 무미하리라고만 했으며 현재 진행중인 재단혁신 투쟁에 있어 학교당국으로부터 책임성 있는 답변은

기대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더 이상 논의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25대 총학생회(회장=최순호, 국교4)는 지난 19일 '부정비리재단이사추진단을 위한 총력기대회'를 갖고 기관지를 통해 뇌물수受的 비리혐의사실을 증거물과 함께 공개된 일부 재단이사, 재단사무처장에게 소위 '재단비리5적'의 퇴진을 요구했다. 이날 집회가 끝난 뒤 참가자 6백여명은 부총장실 집거와 정거중인 이사장실, 총장실의 집거를 끝냈다. 이같이 학내사태가 악화일로로 치달자 학교당국은총장담화문 발표를 통해 총학생회가 제기한 1차 요구안의 해결을 약속하고 조속히 정거농성을 해체할 것을 촉구했으며 학내비리 처벌을 위한 개혁사정위의 구성을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또한 교무위원들은 '학생들에게 일관'이라는 공고문을 통해 공공사무실 점거를 해체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총학생회측은 "총장담화는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재단혁신과 비리척결등의 본질적 문제를 회피한 채 사태수습만을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지난 25일 비상학대대표의 상정하고 오는 6월 8일 비상학생총회를 통해 사정학생특별위원회에서 폭로한 몇몇 재단이사과 학교 고위당국자들의 퇴진 투쟁을 준비중이다.

이에 최총학생회장은 "이제 투쟁은 학교발전을 저해해온 근본적인 이유인 재단에 초점을 맞춘 전면적 투쟁이 될 것"이라고 말하며 '전학내구성원의 단결된 투쟁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학생들의 재단 혁신투쟁이 계속되고 학내사태가 심각한 상태에 이르기 교수회, 직원노조등도 대학의의를 여는등 학내문제해결을 위해 대책마련에 힘쓰고 있다.

교수회(회장=이순호, 법학)는 지난 24일 대의원회를 소집하고 대책위를 구성했으며 앞으로의 활동에 관해 논의하기 위해 오는 27일 교수총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직원노조(위원장=장은은 관재과)는 지난 24일 대의원회를 갖고 성명서체택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로 알려졌다.

또한 본교 스님학생들의 모임인 석림회도 대책위를 꾸리고 지난 24일 배포된 '재단이사님께 드리는 글' 등을 통해 학생회에서 제기하고 있는 몇몇 재단이사및 재단사무처장의 비리사실의 진위를 묻고 공개적합한 해결책을 제시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같이 학내사태와 관련해 재단혁신투쟁을 벌이는 학생회와 여러 학내구성원들의 목소리가 높아져 사태해결을 위한 재단측 입장정리가 시급히 요구되는 실정이다. <취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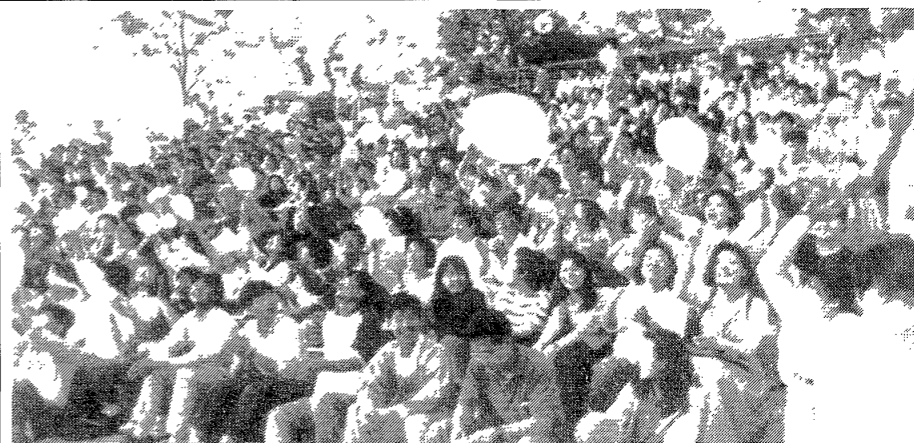
장을 출발 할우정 로타리를 참으로 학생및 교수·교직원에게 기한 가운데 열릴 예정이다.

또한 정직원(원장=최법해, 불교학)에서는 오는 28일 '봉축법요식'을 교직원 학생들이 참가한 가운데 갖는다

교수와 직원, 학생 80여명이 모인 가운데 진행된 이번 강연회는 어떻게 하면 재단을 깨달음의 경지로 이끌 것인가란 주제로 2시간동안 열렸다.

경주캠퍼스에서는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교내강연등 점동식, 계동행렬, 봉축법요식등 다채로운 행사가 열리고 있다.

지난 20일 총학생회 총무부(부장=최광식, 철학4)에서는 교내 일원및 녹야원에서 교내강연등 점동식을 가졌으며 불교도연합회(회장=이종수, 철학4)의 제동행렬이 오늘(26일) 본교대운동



대동제 개막 내 사는 동아리 제일로 동아리라는 주제로 93 목역대동제의 개막이 선포되는 순간 관해광장에 모인 학생들이 일제히 풍선을 날리고 있다. <관련기사 11면 이석중 기자>

## 교무처 "강의계획서 배포 수강정정 불가" "학생들 검증이후 논의 돼야" 교과위

교무처(처장=정병호, 국민윤리학)는 오는 31일부터 6월2일까지 실시하는 2학기 수강신청시에 강의계획서를 함께 배포한다.

그간 수강신청 정정 불가방침에 따라 학생들의 가장 큰 불만이었다던 수강근거 마련을 위한 방안으로 준비된 강의계획서는 각 과별로 7~8만원씩 배포되며 이에따라 수강신청 정정이 부득이한 경우 이외에는 불가능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총학생회 중앙교과위원회장 남철우(농경4)군은 "강의계획서의 충실성을 학생들에게 검증받지 못한 상태에서 수강신청정정제치 방침을 세워놓는 것은 부당하다"며 "실질적 수강신청근거로 강의계획서가 이용되기 위해서는 학교측과 학생들간의 충분한 공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강의계획서는 강좌별로 총3천으로 구성돼 있으며 수강신청 기간이 시작되기 전인 오는 27일경 배포될 예정이다.

### 재직 등동회 범어회호전 개최

'한국고등 범어회호전'이 오는 31일부터 6월 6일까지 대한 불교진흥원 2층 전시장(서울 마포구 소계)에서 본교계적 동문회(회장=이병동, 농업경제학) 주최로 열린다.

이번 회호전에는 원담스님(예산 수덕사)의 심화(心華)등 25점이 전시되며 이중 일부는 본교에 영구보존되며 일부는 판매될 예정이다.

### 전창원 교수 무역실무응답론 발간

무역실무분야의 권위자로 대내외에 알려진 전창원(무역학·대학원장)교수가 무역응답론 전란에 걸친 설명을 담은 '무역응답론 실무(정신사·1만8천원)'라는 서적을 펴냈다.

국내 최초로 무역 실무담당자의 입장 특이 수출·입 화물의 운송계약 체결하는 실무담당자의 입장에서 서술돼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출판사의 한 관계자는 이책에 관해 "기업의 실용성을 위해 선행해야 할 물류(物流)의 내용을 다뤘다는 점에서 실무자들의 좋은 지침서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 제121회 재단이사회 열려 올해 예산안 심의·확정

제121회 재단이사회(회장=김경도, 불교4)는 지난 25일 오후 3시 재단사무처에서 열린 재단이사회의 2차 회의를 열어 올해 예산안 심의·확정 작업을 마쳤다.

이날 회의는 재단이사회의 2차 회의를 열어 올해 예산안 심의·확정 작업을 마쳤다.

이로써 각 학과장실이나 교학과 등에서 이용할 수 있던 세 계대학 학술전산망을 어느곳에서라도 모델이 설치된 컴퓨터만 있으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오는 6월1일 개통되는 다이얼업 5-모뎀 전화번호는 260-3731~5번 까지이며 신규등록자의 경우 전자계산소에 등록후 사용자 번호를 부여받아 사용할 수 있다.

제121회 재단이사회(회장=김경도, 불교4)는 지난 25일 오후 3시 재단사무처에서 열린 재단이사회의 2차 회의를 열어 올해 예산안 심의·확정 작업을 마쳤다.

이날 회의는 재단이사회의 2차 회의를 열어 올해 예산안 심의·확정 작업을 마쳤다.

이로써 각 학과장실이나 교학과 등에서 이용할 수 있던 세 계대학 학술전산망을 어느곳에서라도 모델이 설치된 컴퓨터만 있으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오는 6월1일 개통되는 다이얼업 5-모뎀 전화번호는 260-3731~5번 까지이며 신규등록자의 경우 전자계산소에 등록후 사용자 번호를 부여받아 사용할 수 있다.

제121회 재단이사회(회장=김경도, 불교4)는 지난 25일 오후 3시 재단사무처에서 열린 재단이사회의 2차 회의를 열어 올해 예산안 심의·확정 작업을 마쳤다.

이날 회의는 재단이사회의 2차 회의를 열어 올해 예산안 심의·확정 작업을 마쳤다.

이로써 각 학과장실이나 교학과 등에서 이용할 수 있던 세 계대학 학술전산망을 어느곳에서라도 모델이 설치된 컴퓨터만 있으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오는 6월1일 개통되는 다이얼업 5-모뎀 전화번호는 260-3731~5번 까지이며 신규등록자의 경우 전자계산소에 등록후 사용자 번호를 부여받아 사용할 수 있다.

### 보리수

얼굴은 그 사람의 인격이다. 얼굴을 통해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나타난다. 직업이라든가 교양, 사회적 지위까지도 얼굴에 다 표현된다.

불광에는 결코 성자(聖者)의 얼굴을 가질 수 없다. 주머니가 비어 공복해보이고 걱정이 많으면 얼굴에 수심(愁心)이 가득하다. 사람은 사귀어보아야 안 다지만 얼굴만 보아도 대강은 짐작할 수 있다. 첫인상이 중요하다는 것은 이를 두고 하는 말이다.

얼굴은 뺨속에서부터 가지고 나오는 것이므로 가쁘다고 바빠지는 것이 아니다. 요즘은 성형(整形)이나 정형(整形)이어서 얼굴을 마음대로 바꾸기도 하는 모양이지만 그렇다고

### 얼굴과 인격

바탕이랄까 풍기는 분위기는 어찌지 못한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얼굴이다.

부처님의 제자 가운데 판타카라는 사람이 있었다. 진실하긴 했지만 워낙 바보여서 수행자가 된지 몇해가 지났는데도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판타카는 이를 비판해 환속을 결심했다. 이를 알게된 부처님은 그를 불쌍히 여겨 특별한 수행방법을 일러주었다. 그 방법이란 매일같이 기원 정사의 마당을 쓸고 외출에서 돌아오는 수행자들의 발을 닦아주는 것이었다. 그는 이 일을 묵묵히 했다. 그러는 동안 판타카는 절마당을 쓸다 번뇌를 쓸어내고 발

을 닦아주듯 마음의 때를 완전히 닦아낼 수 있었다. 부처님은 그가 깨달음을 성취한 것을 알고 이를 크게 칭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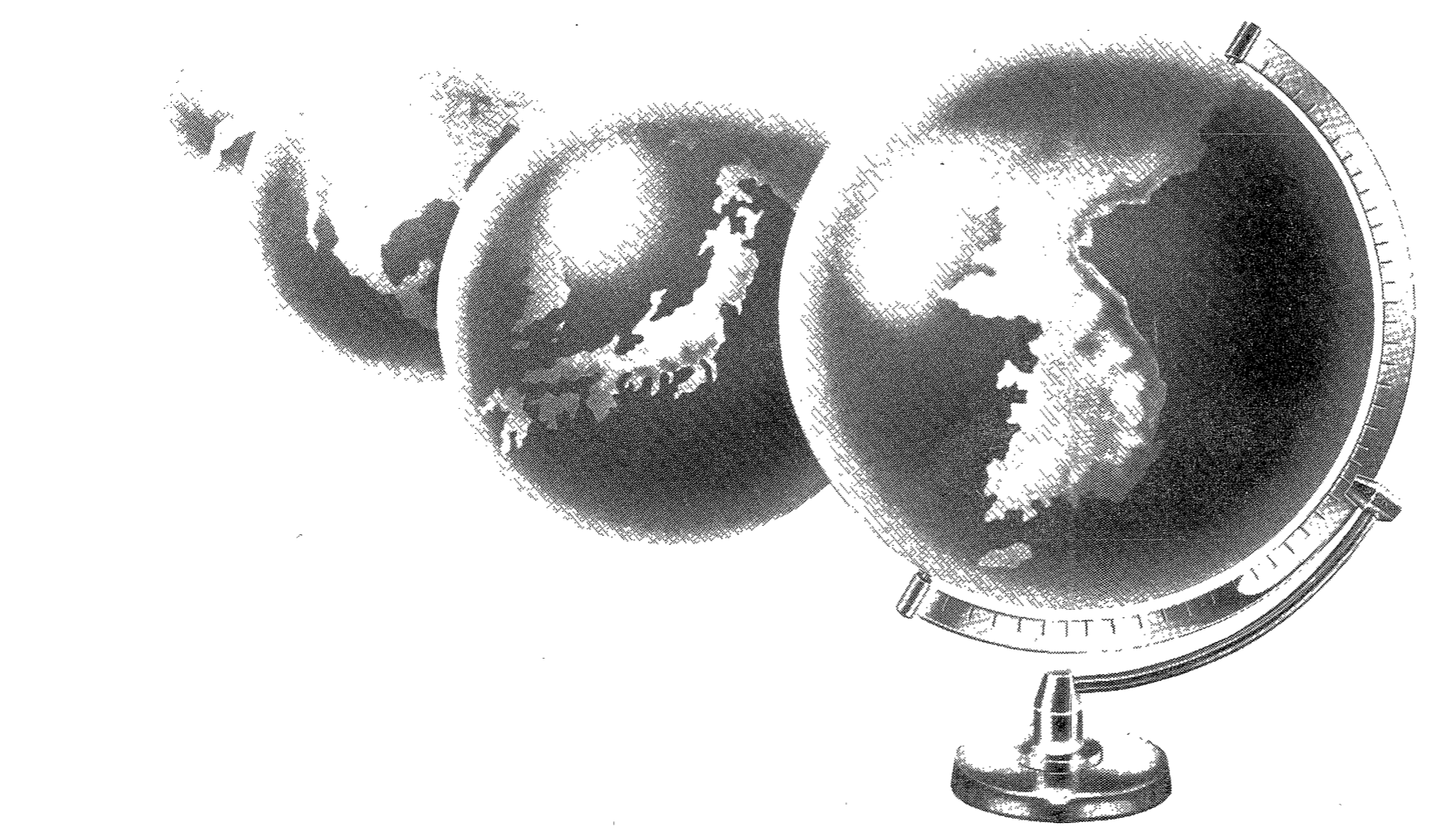
어느날 판타카는 비구니들이 있는 곳으로 부처님을 대신해 설법을 하러 가게 되었다. 비구니들은 바보 판타카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바보가 어떻게 설

왜 그렇게 되었을까. 판타카의 얼굴이 달라져 있었던 것이다. 비록 못생긴 얼굴이지만 그에게는 마음의 평화로움과 겸손함이 표정속에 역력하게 나타나 있었던 것이다.

요즘 우리는 한사대를 주무르던 사람들이 초래한 불교로 둘러싸이는 얼굴들을 자주 본다. 뺨뺨스러움과 부도덕을 합성(合成)해 놓은 듯한 그 얼굴을 보면 마음속에 앞서 측은한 생각이 든다.

정직하고 진실된 얼굴. 슬기롭고 온화한 얼굴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나오는 것이 아니다. 수습하고 화상했다고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다. 그런 얼굴은 그렇게 살아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얼굴은 어떤 모습일까. 우리 모두가 마음의 거울에 비춰볼 일이다. 洪 思 誠

국민과 함께 세계로 도약하는 기업-삼성



## 技動說!

지동설은 지구가 태양의 힘에 의해 공전하고 있음을 알려 주었지만, 정작 지구를 움직여온 힘은 바로 '기술의 힘'이었습니다.

산업혁명을 일으키고 식민지를 개척한 영국을 사람들은 '대영제국'이라 불렀고, 짧은 역사에도 풍부한 자원과 기술로 인간을 달에 까지 보낸 미국을 사람들은 '세계의 리더'라고 불렀습니다.

또한 패전의 고통을 딛고 어느덧 미국을 능가하는 기술을 지닌 일본을 흔히 '무서운 일본'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21세기 - 대서양과 태평양을 건너온 '세계사의 주역' 자리를 이제 우리가 차지해야 할 때입니다.

'인간행복을 위한 첨단기술 - 휴먼테크'의 산실, 삼성전자는 바로 그 21세기의 주인공이 될 당신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주는 의무의 현장입니다.

기술의 힘으로 세계와 겨루는  
**SAMSUNG**  
삼성전자

5월 26일 5주년



5-18 광주민주화운동이 일어난지 1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항쟁의 주역들과 항쟁의 뜻을 계승하려는 노력이 제대로 평가되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5-18을 매도하던 논리가 모두 허위임이 드러나고 있고, 그러한 주장을 하던 자들 모두가 역사와 국민, 그리고 민주주의의 적이었음이 나타나고 있으나, 아직 그것이 국민적 차원에서 '구국의 민주항쟁'으로 공인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5-18에 대한 공식적 평가는 왜곡되어 있고, 5-18광주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진실은 어둠속에 묻혀 있기 때문이다. 다시말해 항쟁의 진상이 한 번도 진실되게 규명된 적이 없고, 그 의미가 역사적, 국가적으로 재조명된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 첫째 원인은 지난 13년간 권력을 장악한 세력이 5월항쟁의 가해자 집단이기 때문이다. 민주항쟁의 가해자 집단인 전두환-노태우 정권에서 진상규명을 기대한다는 것은 나무에서 고기를 구하는 것과 같은 것이었다.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광주 호남을 고립시키고 진상을 왜곡했으며, 학살주범과 주체세력을 은폐하고 조작했다. 뿐만 아니라 5월항쟁에 반감을 갖도록 국민들을 유도하여 구국운동을 망국병인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하나의 방편으로 사용했던 것이다.

김영삼 정권의 출현은 5-18이후 처음으로 정권담당세력이 5-18의 가해자 집단으로 부터 벗어났다는 점에서 5-18광주문제 해결에 대한 국민적 기대를 갖게 했다. 그러나 김영삼 대통령의 5월 13일 화해는 우리에게 실망과 분노를 지어내게 한것으로서, 5-18의 진상규명을 역사에 맡긴다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용서가 되었든, 처벌이 되었든, 명예회복이 되었든 화해는 무엇이지 진상규명없는 아무것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김영삼 정권이 진정한 문민정권이라면, 진정 우리 민족사의 발전을 위한한다면 한시도 지체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5-18광주민주화운동의 진상규명이다.

김영삼 대통령이 5-18의 진상규명을 역사에 맡기자는 것은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미래에 맡기자는 것이지, 국민에 기반을 둔 국가가 할 수 있는 일을 역사에게 맡기자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이며, 또한 오늘 해야 할 일을 내일로 미루자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 이것은 책임회피가 아니라 기만. 나아가 용서와 화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타협과 분열을 용인하는 것으로 전개될 수 있다는 점에서 크게 우려된다.

5월항쟁의 명예회복은 모든 국민들이 그 발단에서 결과까지 그 진상을 앞으로써 이루어진다. 다시말해 명예회복은 진상의 철저한 규명을 통해 5월항쟁이 나라를 구하기 위한 일념에서 나왔을 뿐만 아니라 철저한 평화운동

특시킴으로써 또 다시 국민을 오도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김영삼 정권은 5월항쟁을 지역적인 문제로 축소시키거나 한풀이의 감정적 차원으로 해소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이러한 5-18문제 해결노력에 대한 규정은 전두환-노태우 정권과 질적으로 크게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김영삼 정권이 진정 5-16, 12-12, 5-17의 연장선상에 있지 않고, 군사정권의 후계자가 아니라면 먼저 5월항쟁의 진상을 규명해야 한

원의 일방적 정치적 선언에 불과하다. 따라서 국민적, 역사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 광주특위 활동을 즉각 개시하여 법적 뒷받침이 추진되어야 한다.

셋째, 김영삼 대통령은 '12-12주도세력'에 의해 감해진 '5-17비상계엄전국확대조치'와 '5-18민중항쟁의 진압'에 대한 관계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12-12사태와 5-17조치가 없었다면 광주의 참상은 발생될 수 없었다. 그러나 지난 13일 청와대는 '12-12사태를 허극상에 의한 군사쿠데타적 사건'으로 규정하면서 12-12 주도세력과 5-17비상계엄 전국확대조치, 5-18민중항쟁과의 연관사실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이 없었다.

넷째, 진상규명 그 자체가 전국적인 관심과 동참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그 동안 광주문제의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해 온 모든 관련단체와 연대하여 '법국민진상조사기구'를 만들 것을 제안한다.

다섯째, '5-18광주민주화운동진상조사특별위원회'의 '진상규명소위원회'는 국회 광주특위 구성을 통한 진상규명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별 현장조사, 문서검증, 증언청취, 관련자료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별 현장조사, 문서검증, 증언청취, 관련자료의 수집 및 분석 등을 통해 실제적 사실규명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5월항쟁에 뿌리를 둔 우리 민주당은 진상을 규명하는데 끝까지 총력을 경주할 것이며, 이제 모든 문제는 권력자의 시혜가 아니라 국민적 동향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법적인 문제는 국회를 통해, 다른 문제들은 항쟁의 주역과 시민과의 연대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 특히 진상조사를 위해 '특별검사제'가 도입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정부가 이를 적극 수용하도록 촉구해야 할 것이다.

책임자의 처벌문제 등 진상규명을 계한 나머지 5-18광주문제 해결 5대원칙'은 진상규명 이후 해결해야 할 제 2차적인 문제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우리 민주당은 '진상규명'이 5-18광주문제를 해결하는 '바스르 키'라고 생각하고 이에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시시** **논단**

김 원 기  
민주당 최고위원

# 역사적 진상규명 선행되어야

## 광주문제해결 어떻게 해야하나

이것은 이 항쟁이 있었기에 오늘이 있다는 인식을 국민들이 할 때 비로소 가능하다. 집권자의 지배에 의해 결코 명예는 회복될 수 없다. 5월항쟁의 명예는 오직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여 그 자체가 국민들의 거울이 될 때,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 정신이 계승될 수 있도록 할 때 비로소 회복되고 계승되는 것이다.

김영삼 대통령의 '5-13 담화'에서 나타난 가장 큰 문제점은 광주문제의 명예로운 해결을 통해 진정한 국민화합을 바라는 국민적 요청을 '환골이 자원의 보복'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5월항쟁의 진상을 왜곡시킴으로써 항쟁주체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과 마찬가지로, 진상규명을 위한 정당한 노력을 왜

곡시킴으로써 또 다시 국민을 오도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김영삼 정권은 5월항쟁을 지역적인 문제로 축소시키거나 한풀이의 감정적 차원으로 해소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이러한 5-18문제 해결노력에 대한 규정은 전두환-노태우 정권과 질적으로 크게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김영삼 정권이 진정 5-16, 12-12, 5-17의 연장선상에 있지 않고, 군사정권의 후계자가 아니라면 먼저 5월항쟁의 진상을 규명해야 한

원의 일방적 정치적 선언에 불과하다. 따라서 국민적, 역사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 광주특위 활동을 즉각 개시하여 법적 뒷받침이 추진되어야 한다.

셋째, 김영삼 대통령은 '12-12주도세력'에 의해 감해진 '5-17비상계엄전국확대조치'와 '5-18민중항쟁의 진압'에 대한 관계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12-12사태와 5-17조치가 없었다면 광주의 참상은 발생될 수 없었다. 그러나 지난 13일 청와대는 '12-12사태를 허극상에 의한 군사쿠데타적 사건'으로 규정하면서 12-12 주도세력과 5-17비상계엄 전국확대조치, 5-18민중항쟁과의 연관사실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이 없었다.

넷째, 진상규명 그 자체가 전국적인 관심과 동참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그 동안 광주문제의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해 온 모든 관련단체와 연대하여 '법국민진상조사기구'를 만들 것을 제안한다.

다섯째, '5-18광주민주화운동진상조사특별위원회'의 '진상규명소위원회'는 국회 광주특위 구성을 통한 진상규명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별 현장조사, 문서검증, 증언청취, 관련자료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별 현장조사, 문서검증, 증언청취, 관련자료의 수집 및 분석 등을 통해 실제적 사실규명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5월항쟁에 뿌리를 둔 우리 민주당은 진상을 규명하는데 끝까지 총력을 경주할 것이며, 이제 모든 문제는 권력자의 시혜가 아니라 국민적 동향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법적인 문제는 국회를 통해, 다른 문제들은 항쟁의 주역과 시민과의 연대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 특히 진상조사를 위해 '특별검사제'가 도입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정부가 이를 적극 수용하도록 촉구해야 할 것이다.

책임자의 처벌문제 등 진상규명을 계한 나머지 5-18광주문제 해결 5대원칙'은 진상규명 이후 해결해야 할 제 2차적인 문제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우리 민주당은 '진상규명'이 5-18광주문제를 해결하는 '바스르 키'라고 생각하고 이에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지난 89년 이후 대학사회 뿐만 아니라 한국사회운동의 커다란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했던 '제3의 정치세력' 전대협의 역사가 찬란했던 6년 역사를 뒤로하고 이제는 한총련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역사의 서곡(序曲)을 알리고 있다.

### ◇한총련 출범의 의의

이것은 그동안 전대협의 역사가 한국사회의 산악사의 주역이었음을 생각하면, 그리고 세계변혁운동사의 보기도 모범적인 학생단체였음을 감안한다면, '전대협 해소 한총련 출범'이라는 명칭변경 의미상으로는 큰 의의를 갖는다 할 수 있겠다.

그러면 전대협을 뒤로한 한총련은 우리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다가올까? 그리고 학생운동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까? 새삼 요즘을 금급한 얘기가 아닐 수 없다.

전대협이 내·외적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89년 입수경 대표의 평양출신 참가이후부터이다. 물론 이전에도 남·북 청년학생회담 전두환-이순자 구속처벌이라는 대중적인 사안이 있었으나 실제적인 전대협이라는 이름이 학우들속에 구국의 강령대로, 국민들에게는 전대협이란 이름으로 명확히 새겨진 때는 사실 이때부터이다. 이후의 투쟁을 거치면서 즉 90년 5-9 반민중당 창당반대 8-15 제1차 범민중대회, 91년 5월 강경대일사치사정국 제2차 범민중대회, 92년 3월 총선 12월 대선등을 통해 맹아적이거나 국민들의 희망으로 서서히 자기단련을 하였다.

# 생활·학문·투쟁의 공동체로 도약

이것은 조직발전과도 함께하는 데 1기, 3천여명의 초라한(7)로 시작했던 출범식이 89년 3년, 90년 입수경 대표의 평양출신 참가이후부터이다. 물론 이전에도 남·북 청년학생회담 전두환-이순자 구속처벌이라는 대중적인 사안이 있었으나 실제적인 전대협이라는 이름이 학우들속에 구국의 강령대로, 국민들에게는 전대협이란 이름으로 명확히 새겨진 때는 사실 이때부터이다. 이후의 투쟁을 거치면서 즉 90년 5-9 반민중당 창당반대 8-15 제1차 범민중대회, 91년 5월 강경대일사치사정국 제2차 범민중대회, 92년 3월 총선 12월 대선등을 통해 맹아적이거나 국민들의 희망으로 서서히 자기단련을 하였다.

이것은 조직발전과도 함께하는 데 1기, 3천여명의 초라한(7)로 시작했던 출범식이 89년 3년, 90년 입수경 대표의 평양출신 참가이후부터이다. 물론 이전에도 남·북 청년학생회담 전두환-이순자 구속처벌이라는 대중적인 사안이 있었으나 실제적인 전대협이라는 이름이 학우들속에 구국의 강령대로, 국민들에게는 전대협이란 이름으로 명확히 새겨진 때는 사실 이때부터이다. 이후의 투쟁을 거치면서 즉 90년 5-9 반민중당 창당반대 8-15 제1차 범민중대회, 91년 5월 강경대일사치사정국 제2차 범민중대회, 92년 3월 총선 12월 대선등을 통해 맹아적이거나 국민들의 희망으로 서서히 자기단련을 하였다.

이것은 조직발전과도 함께하는 데 1기, 3천여명의 초라한(7)로 시작했던 출범식이 89년 3년, 90년 입수경 대표의 평양출신 참가이후부터이다. 물론 이전에도 남·북 청년학생회담 전두환-이순자 구속처벌이라는 대중적인 사안이 있었으나 실제적인 전대협이라는 이름이 학우들속에 구국의 강령대로, 국민들에게는 전대협이란 이름으로 명확히 새겨진 때는 사실 이때부터이다. 이후의 투쟁을 거치면서 즉 90년 5-9 반민중당 창당반대 8-15 제1차 범민중대회, 91년 5월 강경대일사치사정국 제2차 범민중대회, 92년 3월 총선 12월 대선등을 통해 맹아적이거나 국민들의 희망으로 서서히 자기단련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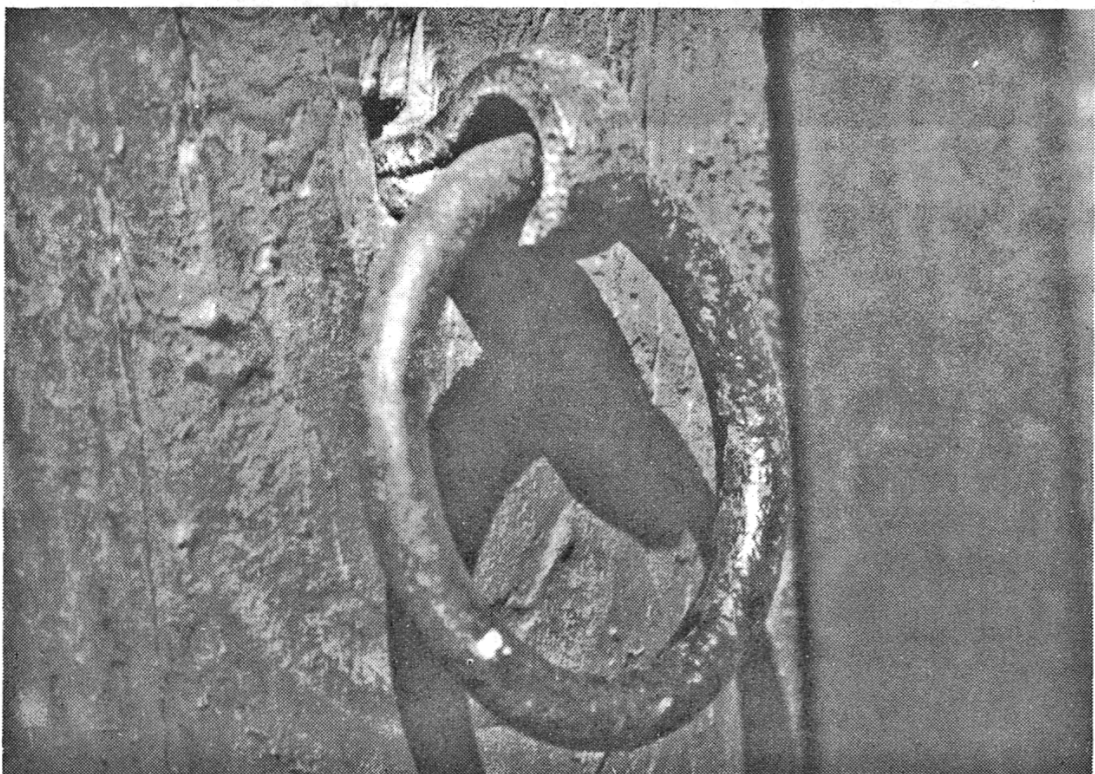
이것은 조직발전과도 함께하는 데 1기, 3천여명의 초라한(7)로 시작했던 출범식이 89년 3년, 90년 입수경 대표의 평양출신 참가이후부터이다. 물론 이전에도 남·북 청년학생회담 전두환-이순자 구속처벌이라는 대중적인 사안이 있었으나 실제적인 전대협이라는 이름이 학우들속에 구국의 강령대로, 국민들에게는 전대협이란 이름으로 명확히 새겨진 때는 사실 이때부터이다. 이후의 투쟁을 거치면서 즉 90년 5-9 반민중당 창당반대 8-15 제1차 범민중대회, 91년 5월 강경대일사치사정국 제2차 범민중대회, 92년 3월 총선 12월 대선등을 통해 맹아적이거나 국민들의 희망으로 서서히 자기단련을 하였다.

이것은 조직발전과도 함께하는 데 1기, 3천여명의 초라한(7)로 시작했던 출범식이 89년 3년, 90년 입수경 대표의 평양출신 참가이후부터이다. 물론 이전에도 남·북 청년학생회담 전두환-이순자 구속처벌이라는 대중적인 사안이 있었으나 실제적인 전대협이라는 이름이 학우들속에 구국의 강령대로, 국민들에게는 전대협이란 이름으로 명확히 새겨진 때는 사실 이때부터이다. 이후의 투쟁을 거치면서 즉 90년 5-9 반민중당 창당반대 8-15 제1차 범민중대회, 91년 5월 강경대일사치사정국 제2차 범민중대회, 92년 3월 총선 12월 대선등을 통해 맹아적이거나 국민들의 희망으로 서서히 자기단련을 하였다.

이것은 조직발전과도 함께하는 데 1기, 3천여명의 초라한(7)로 시작했던 출범식이 89년 3년, 90년 입수경 대표의 평양출신 참가이후부터이다. 물론 이전에도 남·북 청년학생회담 전두환-이순자 구속처벌이라는 대중적인 사안이 있었으나 실제적인 전대협이라는 이름이 학우들속에 구국의 강령대로, 국민들에게는 전대협이란 이름으로 명확히 새겨진 때는 사실 이때부터이다. 이후의 투쟁을 거치면서 즉 90년 5-9 반민중당 창당반대 8-15 제1차 범민중대회, 91년 5월 강경대일사치사정국 제2차 범민중대회, 92년 3월 총선 12월 대선등을 통해 맹아적이거나 국민들의 희망으로 서서히 자기단련을 하였다.

이것은 조직발전과도 함께하는 데 1기, 3천여명의 초라한(7)로 시작했던 출범식이 89년 3년, 90년 입수경 대표의 평양출신 참가이후부터이다. 물론 이전에도 남·북 청년학생회담 전두환-이순자 구속처벌이라는 대중적인 사안이 있었으나 실제적인 전대협이라는 이름이 학우들속에 구국의 강령대로, 국민들에게는 전대협이란 이름으로 명확히 새겨진 때는 사실 이때부터이다. 이후의 투쟁을 거치면서 즉 90년 5-9 반민중당 창당반대 8-15 제1차 범민중대회, 91년 5월 강경대일사치사정국 제2차 범민중대회, 92년 3월 총선 12월 대선등을 통해 맹아적이거나 국민들의 희망으로 서서히 자기단련을 하였다.

### POSCO메세지 공감관



## 새로운 습관은 새로운 운명을 엮습니다.

링컨, 그를 더욱 위대하게 만든 것 중 하나는 모자속에 종이와 연필을 넣어두고 언제나 생각을 정리했던 습관이었습니다. 또 어릴때 책을 읽어주시던 어머니의 독서습관은 샤프트르로 하여금 실존주의철학을 살찌우게 했습니다. 뛰어난 사람의 미래는 풍부한 재능, 변함없는 성실성 그리고 훌륭한 습관의 문을 통해서 열립니다. 이렇듯 평소에 가진 습관이 그 사람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유롭게 주어지는 젊음의 시간 방학 이번 방학에는 거창한 계획도 좋지않, 평생을 함께 할 작고 훌륭한 습관을 하나쯤 만들어봅시다. 방학때 가진 작은 습관 하나가 당신의 미래를 새롭게 열 수도 있습니다.

다음세대의 행복과 다음세기의 번영을 약속하는 국민의 기업



### 東國漫評

김성남



최성곤 <사회대 사회학과>

◇ 현지 광주가 바라보는 문민정부

# 민주화의 원동력인 5·18 민중항쟁 특검제, 특별법 제정으로 진실 밝혀져야

## 김영삼정부의 개혁의지와 5·18문제

변화와 개혁을 통한 신한국창조를 강조하고 있는 김영삼정부는 80년 광주항쟁을 통해 국가권력을 쥔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정부인가? 적어도 광주항쟁의 가해당사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이번의 5·6공과 6공과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김영삼정부의 출범 토대가 광주항쟁을 통해 국가권력을 쥔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정부인가? 적어도 광주항쟁의 가해당사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이번의 5·6공과 6공과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김영삼정부의 출범 토대가 광주항쟁을 통해 국가권력을 쥔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정부인가? 적어도 광주항쟁의 가해당사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이번의 5·6공과 6공과는 차이가 있다.

본질을 희석시켰던 해결방법과 조금도 차이가 없다. 뿐만 아니라 진상규명과 관련, 보복적 한풀이로 표현한 것은 김영삼대통령의 역사인식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13년이란 기간 동안 광주가 음해되고 과거하게 내몰리는 과정에 대한 아무런 사과 한마디가 없다는 것은 김영삼 정권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다. 현행법상 살인에 준하는 행위자에게는 사회로부터 격리수용이라는 극단적인 처벌을 하는데 전직대통령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수많은 사상자를 내고도 법적 면책권을 준다는 것은 김영삼정권의 광주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의 기만성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이다.

### 5·18민중항쟁의 현재성

역사의 진보적 발전은 불행한 과거의 청산을 전제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5·18민중항쟁은 다음 몇가지 측면에서 여전히 현재성을 가지고 있다. 첫째는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적당히 매듭지어보려는 집권세력의 적당주의, 그리고 둘째는 광주민들의 문제를 귀찮시켜 지역문제로 보고 싶어 하는 기득권 세력의 심정, 마지막으로 과거의 문제로 덮어 버리고 싶은 가해세력들의 비행등으로 5·18민중항쟁은 여전히 진상규명 등의 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5·18민중항쟁의 현재성은 지금의 미완적인 하나 민주발전을 이루어 낸 동력이라는 점에서 여전히 현재성을 가지고 있다. 5·18민중항쟁은 군부독재에 대한 범국민적 항쟁을 촉발시킨 계기였으며, 동시에 이후 80년대의 총체적 민주화 투쟁의 한 부분을 관통해 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역사의 진보적 발전, 민주화의 제도적 뿌리내림을 위해서는 5·18문제의 분명한 해결이 선행되어야 한다. 5·18민중항쟁은 한반도의 근현대사의 파행적 발전과정에서 비롯된 모순의 총체적 표출이었으며, 광주는 지금도 그 모순구조에서 신음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다. 5·18문제의 해결은 단순히 과거의 불행한 해결한다는 과거행이 아니라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호남의 정략적 소외의 의도적인 진실의 외면등을 제도적으로 극복함으로써 진정한 의미의 민족 화합을 모색하려는 민족적 의지를 담아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13년동안 계속 온, 왜곡되어 온 광주항쟁의 진상이 규명됨으로써 광주에 대한 일반적 오해와 편견을 극복해야 할 것이다.

### 광주문제는 새정부개혁의 시금석

5·18문제의 해결은 김영삼정부의 개혁 추진의 시금석이 아닐 수 없다. 5·18문제의 해결을 통한 5·6공과 6공의 날짐, 지역갈등의 극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광주항쟁의 진상을 규명할 수 있는 특별검사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이 특별검사제도는 지금까지 양심적 범죄활동을 해온 인사들을 임명하여 그동안 근거관과 행정기관에서 사각, 은폐시켜 온 진상관련 자료와 행위에 대해 특별 권한을 갖고 조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특히 사법권을 갖고 조사를 함으로써 국회청문회들이 가질 수 밖이었던 제도적 모순을 극복해야 한다. 그리고 특별검제를 통한 진상규명과 관련, 예를 들어 임명장에 관련된 인사들이 양심선언을 할 경우

이에 대한 신변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5·18문제의 해결은 대통령 이 광주시에 배풀어주는 시혜적 조치로서가 아니라 합법적이고 제도적으로 해결함으로써 관련피해자에 대한 위화감을 없애야 한다.

그것이 바로 특별법에 의한 문제 해결이다. 이 특별법에는 문제해결의 5대원칙이 담겨지는 것으로서 특별법을 통한 철저한 진상의 규명, 가해자들에 대한 엄정처리, 보상법 폐기 및 배상, 당시의 군사계급의 원상회복을 통한 명예회복, 그리고 시민과 관련당사자들이 참여하는 기념사업 추진주체의 범민체로의 구성을 통한 기념사업 추진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이 묘지성역화의 조속한 시행이 가시화되고 있는데 대해 관련 유가족들은 진상규명 없이는 결코 묘지성역화를 받아들이지 않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80년 당시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온 자식들의 시신을 깨끗하게 씻어주지도 못하고 파묻어야 했던 것이 지금도 한이 되고 있다. 이런 유가족들에게 묘지 성역화는 그만큼 절실한 바램이며, 성역화 및 묘지에 묻혀 민주의 성지로 추앙받게 되는 것이 13년의 고통속에서도 변하지 않은 희망이었다. 그러나 유가족들이 그 간절한 바램의 실현을 눈앞에 두고도 진상규명을 위해 묘지성역화를 거부할 수 밖에 없게까지 하는 또다른 고통이 얼마나 컸을 것인가에 대한 이해가 가능하더라면 13년동안 조금도 변하지 않고 있는 광주에 의외로 고통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 정 동 년 (5·18 광주 민중항쟁연합 상임의장)

◇ 5월항쟁 13주기 맞는 광주를 다녀와서

# “진상규명 그날까지 광주는 멈추지 않는다”

지난 13일 김대통령은 특별담화를 통해 “광주문제의 해결은 역사가 판단내릴 것”이라고 말하며 “정치보복성 책임자 처벌은 대화합의 시대에 걸맞지 않는다”며 누구도 사과하지 않은 광주항쟁 책임자에 대한 용서와 화합의 “통큰 단결(?)”을 보여줬다.

결국 김영삼정권은 한국현대사의 지울 수 없는 오점으로 남을, 언젠간 풀어야 할 광주문제해결에 적극성을 띠지 못한 채 그 정치적 한계를 드러내놓고 말았다.

그리고 18일 광주는 5월 따듯한 햇살 아래 다시한번 망월묘역의 영령들을 위한 추모제를 가졌다. 역대 유래 없던 광주시장의 추모사 낭독과 광주항쟁책임자 화형식까지 치러진 추모제는 그러나 광주시민과 재야학생들의 가슴에 ‘멈추지 않는 의침’으로 남은 5월 민중항쟁의 맺힌 한을 풀기엔 부족할 수밖에 없었다.

광주민중항쟁 13주기, 문민정부 출범 3개월, 광주는 또 다른 ‘오월’을 맞이하고 있다.

문민정부를 맞는 광주.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15년이지만 국가내란죄는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5·18민중항쟁은 살인죄만 적용될 문제가 아닙니다. 군사기관에 의한 국가권력 탄압목적의 내란의 음모에서 비롯됐기 때문입니다.”

5·18광주민중항쟁연합(상임의장=정동년) 허연식(31)간사는 13주년을 맞는 5·18민중항쟁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제정의 이유를 설명하며 5월항쟁 해결을 위한 결의를 밝혔다. 하지만 지금의 광주는 지난 13년 동안의 한과 슬픔을 정권교체로 풀고자 했던 14대 대선의 좌절이후 해결의 의의의 무의미하게 잊고 있을지 모르는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수탈할 수 없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진실이 밝혀지기까지는 막연한 기대감. 80년 당시 시민군에게 줄 주먹밥이 만들어졌던 양동시장일대 시민들의 이야기는 대부분 문민정부의 개혁속에서 광주문제도 해결의 실마리를 잡지 않겠느냐라는 긍정적인 기대감을 담고 있었다. 그러나 5·18장기 부부와 딸이 모두 총격을 당해 후유증을 앓다가 교통사고로 아내를 잃고 막대한 내향(88년 광주 청문회 당시 12세로 최연소 증언자)양아버지 불구가 된 전 5·18부상자의 부회장 김성수(61)씨는 “현정권이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는 5·18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는 양면적인 폭력, 희석화정책을 중지해야 한다. 그리고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수렴해야 한다”며 현 정부의 해결의지에 의구심을 나타냈다.

지난 3월 18일 김대통령의 망월동 참배 저지를 둘러싼 논란들은 이러한 반성들의 스펙트럼을 보여준다. 그 당시 많은 시민들은 학생들의 물리적 행동이라는 방법적 측면의 잘못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광주전남지역 총학생회 연합회장 오장규(전남대 총학생회장)군은 “진정한 해결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시작이다. 참배를 저지

했던 우리의 행동은 5월 투쟁속에서 명확한 해결을 위한 노력의 표명”이라고 밝히고 “그 당시 언론의 편파적 보도에 의해 분열의 모습으로 비춰졌지만 우리의 행동은 진상규명 없는 망월묘역참배는 인정할 수 없다는 원칙이었고 많은 시민들이 공감했다”라고 말한다.

이와같은 광주시민·학생·재야단체들간의 입장차이는 얼마 광주의 혼란으로 보여질 수 있지만 결국 새정부를 맞아 진상 규명, 책임자처벌을 위한 노력의 모색들로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그러나 새로운 모색 또한 이러한 모색은 김대통령과의 면담을 위한 ‘15인 면담대표단’ 구성

명의 핵심이 바로 특별검사제 실시이다.

진상규명없이 5·18민중항쟁의 역사적 자리매김은 생각할 수 없으며 국가적 힘을 갖춘 특별검사의 책임있는 조사를 의해서만 항쟁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특별법에는 90년 제정된 ‘광주보상법’을 폐지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 적절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기구와 범조항의 마련을 이룩하고 있다. 또 명예회복 및 기념사업과 관련된 일차까지 ‘폭도’ 취급을 받던 5월항쟁 관련자 및 피해자들의 정당한 평가와 기념일 지정, 기념사업회의 법인격 위임 등의 조항이 명시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지난 18일 광주 망월묘역에서 있었던 5·18 13주기 기념식 모습.

에게까지 이르렀다. 지난 4월말에 결성된 대표단은 5·18재단, 시의원, 재인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표단의 총책임자이자 5·18위령탑건립 및 기념사업추진위원회 회장인 강신석(55)씨는 5·6공 세력기반이 선 현 정권의 개혁의지를 비판하며 원칙적으로 법적·제도적인 광주에 걸맞은 기관과 무엇보다 대통령직의 의지와 결단이 선행되어야 함을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는 90년 광주보상법을 개정, 광주문제를 돈으로 해결하려는 기만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으며 민주당조차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은 빠진 해결책을 이야기한다”라고 말하는 광주민주청년회 강기정회장의 말처럼 정부나 제도권내의 해결책과 광주시민들의 기대와는 거리가 있다.

한편 재야, 학생들을 포괄하는 광주시민들의 요구는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명예회복 △기념사업 추진 △헌신배상 등으로 이루어진 5대 원칙과 15개조항의 요구안으로 요약된다. 특히 특별검사제도와 특별법 제정이 가장 핵심적으로 제기된 부분인 15개조항의 요구안은 5월항쟁 해결의 새로운 실마리를 제시하고 있다.

모든 광주시민들의 열연된 진상규

이해대해 강신석씨는 “1백% 완결을 바라보진 않는다. 하지만 우선 순위를 두고 선차적 양보는 있을 수 있으나 원칙을 양보한 5월항쟁 해결은 있을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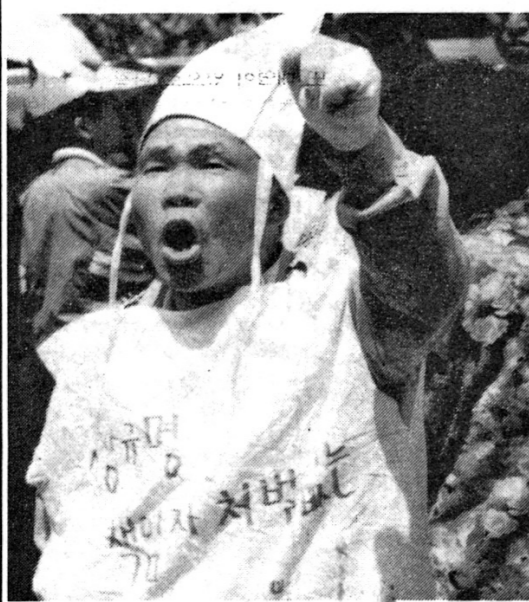
5월항쟁이라는 역사적 사안을 타협과 절충으로 변질시킬 수 없다는 생각은 15인 대표뿐만 아니라 광주시민들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신념이다.

현재 광주에서는 이의 관철을 위해 특별법제정추진 10만인 서명운동을 하고 있다. 서명운동이 끝나면 그 결과를 입국국회에 청원할 예정이다.

“광주에서 전국으로, 전국에서 광주로” 민주주의 민족통일 광주전남연합의 선전문구는 5월항쟁이 더이상 광주지역에서 국한된 문제로 인식됨을 벗어나 현대사에서 가장 중요했던 민주화 실천운동, 나아가 민족적 역사인식의 문제로 부각되길 원하는 광주 시민들의 또다른 기대와 바램의 표현이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한다. 그러나 13년이 지난 지금도 5·18광주항쟁을 기억하고 있는 그들의 ‘한’은 더욱더 풀이 깊어간다. 아직도 그때의 한에 대한 명확한 규명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재환 기자>



◇ 광주시민들의 한은 풀리지 않았다.



◇ 파궤는 청춘의 흔이 다시 오가며...

# 무작정 기다리기엔 너무 가까운 시간들입니다.

모토로라 무선호출기 ‘익스프레스’ ‘카드형’

빠빠만 있으면 무소부재! 사랑하는 그를 언제나 내 곁에! 선후배들을 빠른 시간내에 한 자리에! 무음 진동신호로 맞추어 조용하게!

8가지 다양한 색상의 ‘익스프레스’ 뼈빠가 호주머니에 꼭! ‘카드형’

이젠 무선호출기도 개성시대!  
8가지 다양한 색상으로 감각과 센스를 표현하는 모토로라 ‘익스프레스’와  
얇고 가벼워 지갑이나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기에  
간편한 모토로라 ‘카드형’ 호출기 -  
특히 카드형은 5가지 디자인의 스티커로  
취향에 따라 수시로 앞면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과임원이라고 학회실에만 붙어있을 수야...!”  
해서라도 있으면 찾는 사람이 더 많고,  
그렇다고 학회실에만 죽치고 있을 수도 없는 노릇...  
뼈빠와 함께라면 행동은 자유로.

“아, 오늘은 갑자기 만나고 싶다!”  
서로 머무르는 장소가 일정치 않아  
연락이 곤란했던 적 있으시죠?  
이젠 적어도 본의아니게 바람맞힐 일은 없으시겠죠.

“우리 씨를 스타가 따로 있나요.”  
그 선배님은 늘 바쁜 스타?  
씨클의 기동력과 단함을 위해 뼈빠를 마련하시면  
뼈빠가 바로 스타가 되죠.

“소리가 안 나니 강의 중에도 안심!”  
뼈빠 에티켓 한 가지 -  
강의실이나 도서관에서는 미리  
무음 진동신호로 맞춰 놓으셔야죠.

◆ 뼈빠 사용법은 이렇게 간단!  
먼저 상단부의 호출번호 (012-XXXX-XXXX)를 누르면 후  
번에 소리가 나면 자신의 연락처를 누르면 전화를 걸어 놓고  
수화기를 내려 놓는 세 연계를 기다리시면 됩니다.

◆ 고객 상담 센터  
· 수신자 부담전화: 080-233-0120(서울지역)  
· 직통: (02)733-01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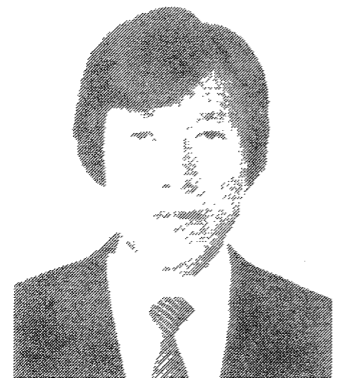
MOTOROLA  
모토로라 반도체통신(주)

인터뷰

강신석 목사(5·18기념 사업추진위원장)
조천호군(고 조사천 열사의 아들)

강신석목사를 만나

김대통령은 바로 지금이 역사속에서 광주가 바로사야 할 시기라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5월항쟁의 진상을 밝힐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문인정부가 들어서고 광주시민들 사이에선 5·18의 진실이 밝혀질지 원하든 바램이 어느때 보다 높다고 밝히는 강목사는 또 지난 3월18일 망월묘역 참배처지에 대해 "니쁘게만 생각할 수 없다."

하지만 학생들이 그 방법적 측면에서 어른의 입자포화를 맞을만한 괴열된 모습을 보인것은 사실"이라고 말하며 "첫 문인정부 출범을 맞은 지금 상황이 5월문제 해결의 전환기로 생각할 수 있으며 문인 대표단 결성 자체가 대화로 문제를 풀수 있는 평화적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민중회의 봄"과 함께 다가온 암울했던 80년 그대. 강목사는 광주지역에서 아학활동을 하며 사회개혁과 역사인식에 새로운 눈을 떠갔다. 5·18당시 강목사는 배우인물로 주목받아 17일 제1호 지명수배자로 공

“헌정권은 역사적인 관점에서 광주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안당국의 눈을 피해 도피해야 했다. 그때문에 그는 한동안 광주를 지키지 못했다. 그는 자기비하에 빠져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지금 강목사는 비민주에 한겨레 군부와 맞서 일어서야만 했던 동지들과 감춰진 5·18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살아남은 자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있다.

"지난 광주문제는 5·18을 폭동으로, 광주시민들을 폭도로 취급했던 과거의 오류를 벗고 회색지에 대한 입장을 정도의 보상으로 해결하려는 기만적인 미봉책을 보여줬을 뿐이었습다"

강목사는 5·18에 대한 지난 군부독재 말기의 양비론적 태도나 현정권의 대화합론으로는 5월문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믿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정권은 역사적 관점에

서 5·18의 적극적인 해결의지를 보여야 할지"라고 강목사는 다시한번 강조한다.

원칙없는 5월문제 해결은 생각할 수 없다고 말하는 강목사는 그러나, "법의 역학관계에서 미래를 유년성있는 양보는 감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

5월문제 해결을 위한 자체노력으로 심포지움·서명운동등을 통한 전국적 인 5월문제 인식확산노력을 지적하는 강목사는 50살을 넘긴 나이에도 불구하고, 청년의 기백이 넘쳐나는 음성으로 마지막 말을 이었다.

"5·18은 광주만의 문제가 아닌 역사적인 차원에서 반드시 바로잡아야 하는 우리민족의 숙제로 남을 수 밖에 없습니다."

<강관식 기자>

조천호군을 만나

광주기계공고 3학년 조천호(18)군. 농구와 기타치기를 즐기며 친구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좋아한다는 조군은 다른 또래의 학생들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는 평범한 고등학생이다.

수줍은 절따는 내성적인 사춘기 소년 조군에게는 해마다 찾아오는 5월 18일이 그의 친구들과 다른 특별한 의미로 찾아온다.

5·18민중항쟁을 기억할때마다 떠올려지는 한강의 사진·형용할 수 없는 표정으로 아버지의 영정을 들고있는 꼬마.

영문도 모르는 채 한곳을 주시하고 있는 초롱한 그 눈망울에는 5·18의 아픈역사와 그속에 숨어있는 진실을 만날 수 있다.

"제가 4살때 돌아가신 아버지께 대한 기억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때 민중회를 외치며 시위대에 나선 아버지의 뜻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광주시 외곽에 자리잡은 아담한 1층 양옥. 바로 그 사건의 주인공 조천호군은 이미 어엿한 청년으로 자라 어릴적과 같은 맑은 눈망울로 아버지께 대한 기억을 대고 있었다.

어렸을적 적극적으로 활동했던 조군이 점점 내성적으로 변해간 것은 중학교때 아버지의 영정을 들고있는 사진이 공개되고 각종 언론에 서달리면서 부터였다.

한창 민중화였던 그 나이 조군에게는 갑자기 다가온 아버지의 존재가 부담스러웠을지 모른다.

어머니 정동순씨는 "아버지 없이도 잘 생활하는 아이들로 키우고 싶었다"며 3남매에게 민중의 제안앞에 몸을 바친 아버지의 희생을 멋있게

“아버지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으면”



4살때 아버지를 잃은 조군의 모습

말할 수 있도록 가르쳤다고 말한다. 조군의 아버지 조사천씨는 당시 건 축업을 하던 평범했던 시인으로 21일 집에 돌아오는 길에 학생을 구터하는 군인들의 모습을 보고 시위대에 합류. 집을 나간지 30분만에 싸늘한 시체가 되어 돌아왔다.

"어렸을 적에는 5·18을 폭동이라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것이 민주화를 위한 소중했던 행동이었다는 것을 압니다" 조군은 이제 아역까지 왜곡되어 있는 5월항쟁의 진실에 안타까움을 표시할 만큼 자라있었다. 현재 5·18이후 유폐정책의 일환으



아버지의 손재주를 물려받아 자동차를 직접 만들겠다는 조군과 어머니가 다정스런 모습을 하고 있다.

로 건설된 광주여린이 대공원에서 일하며 재치너를 키우고 있는 어머니 정씨는 현재가 설립속에서도 아무런 정이 잘 성장해주지 않음에 한상고 마음을 느낀다면서 눈물을 감추지 못했다.

정씨는 현 정부에 대해 "유가족에 대한 특별보상 및 지원할 수 있는 사회적 배려가 없다"고 말하며 정부의 적절한 조치를 바란다고 밝혔다.

조군에게는 작은 소망이 있다. 건 축업을 하던 아버지의 손재주를 물려 받아 설계를 전공하여 자동차를 직접 만들어 보는 것이 그것이다.

<사회부>

단과대 학장에게 듣는다

6경상대 김진세 학장



정보화 사회에 대응하는 교육여건 필요 컴퓨터 실습실 기자재 확충이 절실

은 편이다. -졸업생들의 올바른 사회진출을 이라면 -앞으로 세계는 국제간의 무한한 경쟁시대가 되므로 우수한 기업인-금융인들이 많이 필요해지는 상황이 온다.

우리나라 또한 국제적인 사회에 발 맞추기 위해 인적양성이 필요한 시기에 대기업으로 진출해 앞으로 기업인으로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자기 소질을 배양하는 것이며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국제적인 기업가가 되어야 한다.

한편 금융계로 진로를 잡은 학생들은 올바른 금융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금융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조성되어야 할 여건은

-학생들은 전공이나 영어이외에도 제2외국어나 기타 필요한 것들을 좀더 열심히 공부해야 하며 학교교사 이외에 정보처리기술등 정보 산업에 대응하는 보다 전문적인 교육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매년 논의를 통해 교과과정을 시대에 맞는 학문으로 개편하고 있다.

-경상대학 학생들의 연구의욕 고취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은

-연학분위기 쇄신과 연구의욕 고취를 위해 한국학술문화상을 시상한다.

이 상은 10여년 전부터 실시해 왔으나 최근 몇년간 그 맥이 끊어졌었다. 그러나 올해부터 다시 정비해 실시하고 있다.

-현재 공인회계사의 합격률은 -1년에 10명내외의 합격생을 배출하고 있다.

-공인회계사 준비생들에 대한 지원은 -계산고시학사에 공인회계사 준비반을 별도로 편성하고 있으며 실습실습비와 보조금을 합해 한 학기에 한차례씩 특강을 실시하고 있다.

-합격생을 보다 많이 배출하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많은 지원을 해 외부교사 초빙특강을 자주 가져야 할 것이다. 또한 많은 학생들에 대한 지원도 요구된다.

-앞으로 경상대학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면학에 열중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하며 우수교수의 영입또한 필요하다.

특히 컴퓨터실습실의 기자재 확충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외에도 학생들이 갖추어야 할 소양이란

-조직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학생생활도 해보는 것이 좋을 듯 싶다. 사회생활에서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조직속에서의 대인관계인듯 싶다.

-미리마련 학생들이나 학교당국에 바라고 싶은 점은

-학교당국은 교육환경 개선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하며 학생들은 이에따라 열심히 공부해야 할 것이며 이외의 학생들은 교수관계를 폭넓게 하고 조직생활에도 잘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할 것이다.

<이석중 기자>

동익로

“야. 이놈들이 이게 문인정부냐?” “네라지! 학생들을 왜 때려!”

지난 18일 해가 저물때쯤 어느 한 시민이 외치는 소리다.

이날 오후 6시 연세대 도서관 앞 광장에는 전국 각지에서 온 학생들이 전두환-노태우 체포선봉대를 결성하고 기두로 진출하려고 전경들과 대치하고 있었다.

문인시대와는 결맞지 않게 전경 2천여명과 다연발 최루탄 발사기, 페퍼포그차2대 등 5·6공시대의 시위단장 광경을 무색케 할 정도의 물량이 투입됐다.

얼마후 몸싸움이 벌어지고 최루탄을 무작정 쏘고도 끈뚱하고 폭도를 휘두르며 학생들을 진압하는 전경들께 지나가는 시민들은 한마디씩 던지고 간다. “이게 무슨 문인시대야”, “저것들도 똑같은 놈들

아냐” “광주학살 진상규명 책임자를 처벌하라”, “광주학살 책임자 전두환-노태우를 구속 처벌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학생들은 연희동으

로 대열이 앞으로 나갈수록 시민들의 호응은 커져만 갔고 이리 퍼를 울리던 학생들조차 이 울원의 소리에 힘을 얻은듯 한발씩 앞으로 나갔다.

또 대열이 앞으로 나갈수록 시민들의 호응은 커져만 갔고 이리 퍼를 울리던 학생들조차 이 울원의 소리에 힘을 얻은듯 한발씩 앞으로 나갔다.

결국 학생들은 한층한 깃발을 앞세우고 연희동 입구까지 다달았고 이제는 마지막이라는 듯이 전경들은 양쪽 길을 모두 막고 최루탄을 쏘아대기 시작했다.

어느 한구석 빠져나갈 곳없이 독안에 든 쥐꼴로 길바닥에 엎드려 최루탄 연기를 피해보려는 학생들에게 무자비한 최루탄 세례는 계속됐고 백발백중의 폭력은 너무나 잔인했던 것 아닐까.

이 광경을 보며 지나가던 시민들은 이구동성으로 외쳤다. “과연 누구를 위한 문인정부인가!”

<이석중 기자>

로 조금씩 조금씩 나갔다. 이때마다 이어지는 시민들의 격려는 전경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원하는 민중의 목소리였다.

제3회 대학생 논문 현상공모

젊은이들의 뜨거운 가슴, 진지한 눈빛 속에 내일을 이룩하려는 힘이 있습니다. 1924년 창업한 이래 꾸준히 성장·발전해 온 삼양사가 금년도에 대학생 여러분들이 상아담에서 연마한 학문적 이론을 마음껏 펼 수 있는 장을 마련, 제3회 대학생 논문 현상공모를 실시합니다. 높은 학구열과 진리탐구의욕에 불타는 전국 대학생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1. 참가대상: 전국 대학교 및 대학원 재학생
2. 논문주제: 근로자의 가치관 변화에 따른 노사관계 재정립 방안, 대학교육의 효율화를 위한 산학협동방안, 국제화에 따른 인제 양성 방안,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방안, 남북 경제 통일시의 대북사업화 방안
3. 응모요령: 원고는 타이프나 워드프로세서로 30~40매 내외로 작성 (※ 제출시 2~3매 내외의 요약본 첨부 요망)
4. 응모마감: 1993년 9월 3일(금)
5. 제출처: 당사 인사부 인사과 논문현상 공모 담당자, 우편접수시 당일자 소인분까지 유효 (서울시 종로구 연지동 263 (주) 삼양사 인사부 인사과, 우편번호: 110-725)

- 6. 당선작 발표: 1993년 10월 5일(화), 당선작 개별통지 및 월간지 게재
7. 시상내역: 최우수작 1편: 상패 및 상금 300만원, 우수작 1편: 상패 및 상금 100만원, 가작 3편: 상패 및 상금 50만원, 응모자 전원에게 고급기념품 제공
8. 기타: 응모작품은 다른 간행물이나 논문집 등에 발표되지 않은 것이어야 하고, 국내의 저서나 논문을 인용할 경우 반드시 원전을 밝혀야 합니다. 논문 응모시 반드시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명기하고, 재학증명서 1부를 첨부하기 바랍니다. 접수된 논문은 반환하지 않으며, 당선작에 대한 저작권은 당사에 귀속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당사 인사부 인사과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TEL : 740-7155, 7157)



주식회사 삼양사(化纖, 식품, 사료, 化肥, 원경사업) ● 삼양중기주식회사 ● 삼일포도당주식회사 ● 삼남식품유화주식회사 ● 삼양화학주식회사 ● 삼한제분주식회사 ● 전북투신주식회사 ● 주식회사 삼양메디케어 ● 대한 삼인 파이버 ● 삼양고분유연구소 ● 삼양그림디자인연구소 ● 삼양그림선업연구소 ● 양명회 ● 수당장학회

-동국대학교 개교87주년-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Advertisement for Buddhist activities. Includes contact info for 三仙布教院 (Samsen Buddhist Education Center) and 松廣寺 (Sungwang Temple). Lists various Buddhist groups and their addresses/phone numbers.

시부 장원

저 두류주를 써서 있는
영웅 속세
고요함으로 내가 감히더도
꽃을 하나 및 떨어
점점들
비밀의 상상으로
그리움 찾아 떠도는 영웅,
만나고 싶습니다

나는
바깥에도 없이 꿈틀 꾸는
이름없는 꽃꽃일만

저기, 시월도록 푸른 하늘
눈으로 가리워진 그리움 찾아
푸르름 언덕 날아오는 풍채리림이

시부 우수1석

아닌
누이의 비밀인양 수줍은 활짝 아래
꽃을 활짝 활짝 활짝
꽃을 배운 꽃꽃일만

신 발

꽃잎이 베껴져 쓰러지는 햇살 아래
풍미
꽃에 수월한 풍경들을 비끼릅니다.

저기, 리악산길적 정교살림적
죽은 푸르름하고 일보러진적
지현의 풍경이 들어 있습니다.

밤이면
어느 별자리의 셋장을 타고
인도의 비늘 편강은
은여의 흰한 몸짓을
잡을 것입니다

진목에 불꽃이 쏟아지는
아카시아 꽃잎 아래
그늘과 만나고 싶습니다

저들은 한 잔 잔치를 찾아 창밖 바라
모두 쇼윈도에 정경된 삶을 포기한 사람
동네에 푸자계 및 꿈들이 밤을 내밀어 오
고 있다.

푸르름으로 일락해 버린 하늘 아래 나는
꽃이아만 했다.

심사평 <시부>

“시 문학의 내일은 그 전망이 밝은편...”

올해는 호모지적 전례적수준
이 넘는다. 김해현의 <만남>은
진논거미로 쓴이제는 아카시아
의 활약에/그리움 찾아 떠도는
영웅, 만나고 싶습니다

소설부 우수1석

본사 주최 제31회 전국 고교생 문학콩쿠르 입상작

소설부 우수1석

내가 언제부터 영달래를 알게
되었는지는 가늠이 나지 않는다.
그저 실낱이 뜬채 나뉘어가는
마치와 리아미엔 관내에도 몇코
꽃이 술술 흐를 것 같은 월간인
웃음, 그리고 영웅 속운 다미들
간신히 받치고 있는 잠정 고무신
이 잔부이다. 영달래 암바는 마
를 어흔들이 '떨화 타고 푸르름
무담이었다. 피루루 새카맣고 파
라 에보르디는 많은 영달래하는
라 하얀 독선이 유년이다. 그중에서
그렇지만 꽃을 할 수없이. 흥
겨워는 눈으로는 여대다 정분들
차지고 같이 는 날은이김일이
잠속에 나타나 내 목을 졸라 내

소설부 우수1석

엄마의 가리마처럼 반듯한 신작로
그중에서도 가장 즐거움을 준 것은
허루에 두번씩 지나가는 버스였다

있고 난 헛웃음로 영달래 영미의
손을 때려내버린 했다. 영달래는
재민에게 고무신을 놓아라. 사립원
출미엔 어찌되어 버리었다.

“죽음들이 오지마. 봄빛이 가
자 내년도나 바꾸니 말해 미끄
고 사 달래 날이 잠바려 나뉘어고서
계.”
계정이아들은 고무신을 놓이게
한사였다. 오뚜와 지러한 햇살
에 꽃잎이 느려는 두번이 있어
는 모든 봄기운이 뒤 잠습을 담
고 있는 곳이었다. 수없이 영미
따를 끌고 지나가는 고무줄 소리
가 그로 영달래야 난 한바다의
실화에 걸음으로 뛰어와야
만 했다. 여대다 영달래가 오기
않는 날 그에게 잠을 찾아가면
영달래는 잠바려를 들고 잠든
꿈에 영미에게 물어 두어 있었다
다. 영달래 영미는 영달래의
활미엔 여미다 사자처럼 이를 갈
고 싶어 하였다. 언젠가 영미
가 고무신을 놓아 내면 것일까?
“푸르름 속으로 함께 한꿈
이 베껴서 만드나니 비늘의
꽃들이 가리마로 있었다. 영달래
영미의 가리마로고도 나뉘어온
손
이 영달래의 머리칼 사이를 헤집
고 영달래를 나뉘어 휘둘러주
면만 끌어 내었다.

소설부 우수1석

“그날부터 영달래가 따주는
아카시아는 지리하게 비스를
기다릴때면 좋은 주전부리가 되었다”

햇살이 보였다. 모두들 비하에
고르산데 흔들렸다. 고무셔를
따달라 따주는 아카시아는 지리
하게 비스를 기다릴 때면 더없이
좋은 주전부리가 되었다. 겨울에
는 비늘 거머잡고 지리하게 있었
지만 백설강화처럼 아카시아는
알려져서만 있는 것이 백설강화이
만큼 아름답고 난 생겼다.
그리고 허락에 느끼는 꽃들이
는 비스도 없는 비스도 남아
있을 했다. 초여름 영미가 유년
이 떠났던 날 난 리아미엔에서
같이 스산하게 봄을 기다릴
기 되었다는 말을 들었다. 난 솔직
히 생김법만 아까워 하므로
는 비스도 없는 아카시아가
키스도 않는 영미가 한바다로

“당담해, 너네 영민 할 주전
부리다. 지리하게 나뉘어 버린
꽃들이 영미가 놓아라. 사립원
출미엔 어찌되어 버리었다.
“죽음들이 오지마. 봄빛이 가
자 내년도나 바꾸니 말해 미끄
고 사 달래 날이 잠바려 나뉘어고서
계.”
계정이아들은 고무신을 놓이게
한사였다. 오뚜와 지러한 햇살
에 꽃잎이 느려는 두번이 있어
는 모든 봄기운이 뒤 잠습을 담
고 있는 곳이었다. 수없이 영미
따를 끌고 지나가는 고무줄 소리
가 그로 영달래야 난 한바다의
실화에 걸음으로 뛰어와야
만 했다. 여대다 영달래가 오기
않는 날 그에게 잠을 찾아가면
영달래는 잠바려를 들고 잠든
꿈에 영미에게 물어 두어 있었다
다. 영달래 영미는 영달래의
활미엔 여미다 사자처럼 이를 갈
고 싶어 하였다. 언젠가 영미
가 고무신을 놓아 내면 것일까?
“푸르름 속으로 함께 한꿈
이 베껴서 만드나니 비늘의
꽃들이 가리마로 있었다. 영달래
영미의 가리마로고도 나뉘어온
손
이 영달래의 머리칼 사이를 헤집
고 영달래를 나뉘어 휘둘러주
면만 끌어 내었다.



아카시아

다독 준다. 어머니가 철야를
만들면서 심결한 눈으로 이쪽 저
쪽을 둘러볼 때 나도 코앞이 영
해울을 느낀듯 가슴 실려할듯
리가 걸렸했다. 울음꽃같은 손들
차리면서 영달래 영미가 반듯이
는 내리치고 있었다. 그러면 영달래
는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나고 금
새 로 쓰러졌다. 도마란 풍우야
리엔 정류는 과거 흉년이 퍼어
있었고 지현의 정류는 강하고
반신. 유해는 신미하러만
활미엔 여미다 사자처럼 이를 갈
고 싶어 하였다. 언젠가 영미
가 고무신을 놓아 내면 것일까?
“푸르름 속으로 함께 한꿈
이 베껴서 만드나니 비늘의
꽃들이 가리마로 있었다. 영달래
영미의 가리마로고도 나뉘어온
손
이 영달래의 머리칼 사이를 헤집
고 영달래를 나뉘어 휘둘러주
면만 끌어 내었다.

제31회 고교문학콩쿠르 입상작 평단

시 부

장 원 김진민 경북고 <만남>
두우치의
아름바 달망미고 <신발>
두우치의
정해진 대미미고 <만남>
두우치의
정해진 대미미고 <만남>
두우치의
정해진 대미미고 <만남>
두우치의
정해진 대미미고 <만남>
두우치의
정해진 대미미고 <만남>

수 필 부

장 원 최정현 경남고 <가방>
두우치의
마침진 정적미고 <만남>
두우치의
마침진 정적미고 <만남>
두우치의
마침진 정적미고 <만남>
두우치의
마침진 정적미고 <만남>
두우치의
마침진 정적미고 <만남>

소 설 부

두우치의
김지수 대전대여정 <아카시아>
두우치의
김지수 대전대여정 <아카시아>
두우치의
김지수 대전대여정 <아카시아>
두우치의
김지수 대전대여정 <아카시아>
두우치의
김지수 대전대여정 <아카시아>

단 체 상

두우치의
김지수 대전대여정 <아카시아>
두우치의
김지수 대전대여정 <아카시아>
두우치의
김지수 대전대여정 <아카시아>
두우치의
김지수 대전대여정 <아카시아>
두우치의
김지수 대전대여정 <아카시아>

심 사 위 원

시 부
김창호 <신민 국어교육고 교수>
이희기 <신민 국어교육고 교수>

수 필 부
김진현 <문학평론가 국어교육고 교수>
김진현 <문학평론가 국어교육고 교수>

소 설 부
김진현 <국사국어교육고 교수>
김진현 <국사국어교육고 교수>

심사평 <소설부>

산문적 상상력의 한계 드러나
감각적 문장, 참신한 문체 적어

미번 소설 상상력의 주권
은 한바다로 기려 하였다. 두
어 지러한 정류는 강하고
반신. 유해는 신미하러만
활미엔 여미다 사자처럼 이를 갈
고 싶어 하였다. 언젠가 영미
가 고무신을 놓아 내면 것일까?
“푸르름 속으로 함께 한꿈
이 베껴서 만드나니 비늘의
꽃들이 가리마로 있었다. 영달래
영미의 가리마로고도 나뉘어온
손
이 영달래의 머리칼 사이를 헤집
고 영달래를 나뉘어 휘둘러주
면만 끌어 내었다.

수필부 장원

가 방

저쪽은 반박만해 빛나는데 보이
시곳? 그리고요... 아주 어엿을
적
만하늘에 빛나던 예미 빛이
로, 영미엔에 키가 큰 기념으로
영미가 가까이 왔을때 따지고
왔
이요. 여기 분봉은 밤하
스미는 부른은 제가
사미는 부른은 제가
사미는 부른은 제가
사미는 부른은 제가
사미는 부른은 제가

“가방이 뭐야? 가방이 뭐야?
가방이 뭐야? 가방이 뭐야?
가방이 뭐야? 가방이 뭐야?
가방이 뭐야? 가방이 뭐야?
가방이 뭐야? 가방이 뭐야?”

“가방이 뭐야? 가방이 뭐야?
가방이 뭐야? 가방이 뭐야?
가방이 뭐야? 가방이 뭐야?
가방이 뭐야? 가방이 뭐야?
가방이 뭐야? 가방이 뭐야?”

“가방이 뭐야? 가방이 뭐야?
가방이 뭐야? 가방이 뭐야?
가방이 뭐야? 가방이 뭐야?
가방이 뭐야? 가방이 뭐야?
가방이 뭐야? 가방이 뭐야?”

“가방이 뭐야? 가방이 뭐야?
가방이 뭐야? 가방이 뭐야?
가방이 뭐야? 가방이 뭐야?
가방이 뭐야? 가방이 뭐야?
가방이 뭐야? 가방이 뭐야?”

“가방이 뭐야? 가방이 뭐야?
가방이 뭐야? 가방이 뭐야?
가방이 뭐야? 가방이 뭐야?
가방이 뭐야? 가방이 뭐야?
가방이 뭐야? 가방이 뭐야?”

“가방이 뭐야? 가방이 뭐야?
가방이 뭐야? 가방이 뭐야?
가방이 뭐야? 가방이 뭐야?
가방이 뭐야? 가방이 뭐야?
가방이 뭐야? 가방이 뭐야?”

“가방이 뭐야? 가방이 뭐야?
가방이 뭐야? 가방이 뭐야?
가방이 뭐야? 가방이 뭐야?
가방이 뭐야? 가방이 뭐야?
가방이 뭐야? 가방이 뭐야?”

수필부 우수1석

바 림

바람이 뭐야? 바람이 뭐야?
바람이 뭐야? 바람이 뭐야?
바람이 뭐야? 바람이 뭐야?
바람이 뭐야? 바람이 뭐야?
바람이 뭐야? 바람이 뭐야?”

“바람이 뭐야? 바람이 뭐야?
바람이 뭐야? 바람이 뭐야?
바람이 뭐야? 바람이 뭐야?
바람이 뭐야? 바람이 뭐야?
바람이 뭐야? 바람이 뭐야?”

“바람이 뭐야? 바람이 뭐야?
바람이 뭐야? 바람이 뭐야?
바람이 뭐야? 바람이 뭐야?
바람이 뭐야? 바람이 뭐야?
바람이 뭐야? 바람이 뭐야?”

“바람이 뭐야? 바람이 뭐야?
바람이 뭐야? 바람이 뭐야?
바람이 뭐야? 바람이 뭐야?
바람이 뭐야? 바람이 뭐야?
바람이 뭐야? 바람이 뭐야?”

“바람이 뭐야? 바람이 뭐야?
바람이 뭐야? 바람이 뭐야?
바람이 뭐야? 바람이 뭐야?
바람이 뭐야? 바람이 뭐야?
바람이 뭐야? 바람이 뭐야?”

“바람이 뭐야? 바람이 뭐야?
바람이 뭐야? 바람이 뭐야?
바람이 뭐야? 바람이 뭐야?
바람이 뭐야? 바람이 뭐야?
바람이 뭐야? 바람이 뭐야?”

“바람이 뭐야? 바람이 뭐야?
바람이 뭐야? 바람이 뭐야?
바람이 뭐야? 바람이 뭐야?
바람이 뭐야? 바람이 뭐야?
바람이 뭐야? 바람이 뭐야?”

“바람이 뭐야? 바람이 뭐야?
바람이 뭐야? 바람이 뭐야?
바람이 뭐야? 바람이 뭐야?
바람이 뭐야? 바람이 뭐야?
바람이 뭐야? 바람이 뭐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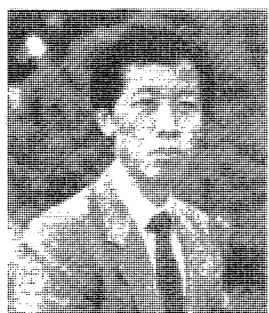
1993학년도 후기 동국대학교 각 대학원 학생모집

Table with 10 columns: 일반대학원, 불교대학원, 행정대학원, 경영대학원, 교육대학원, 정보산업대학원, 산업기술대학원, 지역개발대학원, 1. 모집학과 및 전공, 2. 모집인원, 3. 모집요강 및 내용, 4. 모집방법, 5. 기타. Each column lists various departments and their respective admission details.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대학원 교학부로 문의바랍니다. 대표전화:(서울)260-3114

교수기고 창업의 실제와 이론

기술창업은 경제발전과 '불가분' 관계



박준엽 <공과대 산업공학과 교수, 창업특강>

서문

기업가는 현대 사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직업이라고 할 수 있다. 중세를 성직자의 시대라고 한다면 20세기를 기업가의 시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기업가의 이와 같은 중요성은 앞으로 더욱 계속될 것으로 보여 아직은 그 끝이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업가가 되는 것을 생각해볼 때가 된다.

기업가란 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말하며, 바로 기업가라 탄생되는 사람인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창업을 하고자 하지만 창업에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래서 창업에 대하여 체계적인 지식의 수요가 발생한다.

기업의 창업이란 개인에게 있어서 이윤을 얻기 위한 행동이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창업이란 사회의 경제 발전을 위한 기본적인 활동으로서 공익적인 측면도 인정되는 것이다. 그래서 세계의 여러 나라에서는 창업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시행되고 있다. 대학에서는 창업에 대한 강좌를 개설하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창업에 대한 이론과 기술이 아직 도입단계에 있다고 본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이같은 창업에 대한 기초적인 이론, 창업지원제도, 국내의 창업에 대한 교육 및 연구 동향을 소개하려고 한다. 또, 기업창업에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몇가지 유의 사항도 지적하여 현장감 있는 내용도 포함하고자 한다.

창업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스스로 창업하여 기업가가 되고자 하는 사람에게나 창업을 학술적인 대상으로 하려는 사람에게나 마찬가지로 창업 과정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창업과정은 연구자들에 따라서 여러가지 다른 모형으로 표현되어 왔다. 그런데 필자는 창업현상을 창업의 3요소와 창업 과정으로 분해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창업의 3요소
창업의 3요소는 창업에 필요한 기본적인 자원으로서 사업아이디어, 자본, 창업자를 지칭한다. 창업의 3요소를 중심으로 하여 창업을 해설하면, 창업이란 '창업자'가 '사업아이디어'와 '자본'을 결합하여 새로운 기업을 만드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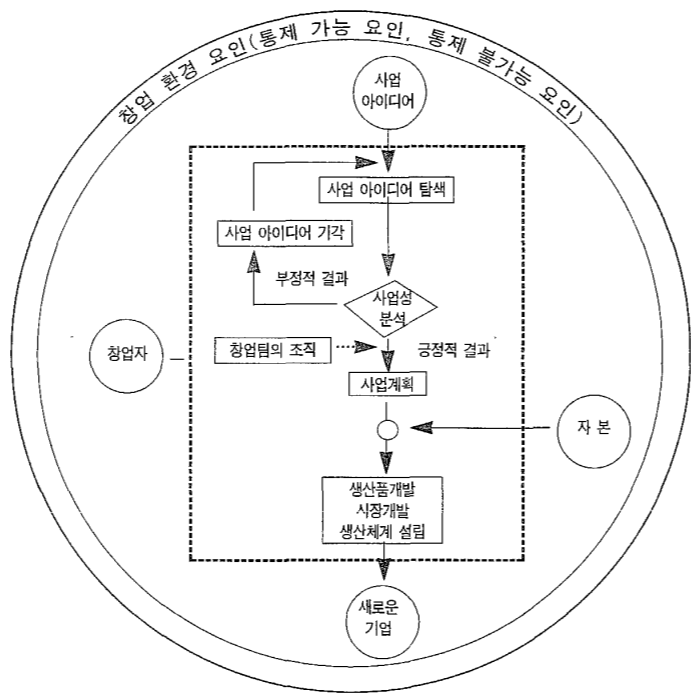
창업과정
창업의 3요소를 중심으로하여 새로운 기업이 설립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창업의 시발점은 사업아이디어의 획득이다. 이것을 후보 사업아이디어라고 하겠다. 후보 사업아이디어가 이윤실현이라는 기업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를 조사하는 일을 사업성 분석이라고 한다.

후보 사업아이디어에 대하여 사업성 분석을 실시하여 만족스러운 결과가 예상되면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하여 새로운 기업을 탄생시킨다. 그런데 만약 후보 사업아이디어에 대한 사업성분석의 결과가 부정적으로 나타나면, 그것을 기각시키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탐색하여야 한다. 많은 사람들은 사업아이디어의 탐색과 사업성분석(정식으로 수행하는 것은 아니지만)을 반복할 뿐이고 창업에 이르지 못하고 만다. 이와 같은 창업의 3요소와 과정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에 표시된 창업팀은 창업에 있어서 창업자에게 협력자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물론 창업팀이 없이 혼자서 창업을 하는 경우도 있다. 그림 1에 표시된 창업 환경요인은 창업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가지 요인이 있음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사회의 경제적 상태, 기술적인 기반, 창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관련된 규제, 지원제도 등과 같은 것이 창업에 영향을 주는 환경요인들인 것이다.

창업에 대한 교육과 연구

교육: 창업에 대한 이론적 및 실무적인 내용들을 배우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교육이 효율적일 것이다. 예를 들면, 사업기회를 포착하는 기법, 사업성 분석방법, 사업계획작성요령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체계적으로 배운다면 창업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며 실패를 예방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대학에서는 창업을 정규과목으로 가르치는 곳이 있다.



<그림 1> 창업의 3요소, 창업 과정, 창업 환경 요인

미국에서는 대부분의 대학에서 창업을 정규 강좌로 개설하여 가르치고 있다. 전공분야로 다루고 있는 대학도 있다. 경영학과에서 뿐만 아니라 공과대학에서도 가르치는 곳이 많다. 예를 들면, MIT, 스탠포드 대학 등에서는 공과대학에서도 창업을 가르친다. 이와 같이 공과대학에서 창업을 가르치는 배경을 살펴보면, 기술

대학교에서는 필자가 산업공학과에서 '타당성 분석'이라는 과목에서 창업에 필요한 내용과 사업성분석 기법을 다루고 있다(심학선 2학기과목). 우리나라에서는 사설컨설팅회사들이 창업강좌를 개설하여 왔다. 2, 3년 전에는 이와 같은 강좌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최근에는 경기 침체로 인하여 대단히 저조한 상태에

다. 우리나라에서도 대학에서 창업강좌가 확산되어 창업에 관심이 있는 젊은이들에게 기업가로 성공할 수 있는 소질을 개발해 주어야 할 것이다. 경제학자 슈메터는 혁신을 이루는 기업가 정신(entrepreneurship)이란 말로 경제를 발전시키는 원천적인 요소라고 주장하였다. 미국에서는 창업이 대학원 및 학부과정에서 전공분야로 개설된 것도 있다.

연구: 창업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창업에 대한 과학적

인 탐구를 통하여 창업의 성공률을 높이는 등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알아 내기 위한 것이다. 미국을 위시하여 구미제국에서는 창업에 대한 연구를 1960년대부터 시작하였으며 지금도 중요한 연구분야로서 활발하다. 우리나라에서도 창업에 대한 연구가 다소 수행되고 있으나 아직 저조한 상태이다.

창업의 연구 분야는 다양한데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기업가의 특성
- 창업자의 경영 특성
- 모험자본(venture capital)
- 사업성분석
- 첨단기술분야의 창업
- 기업내 창업(회사내에서 새로운 사업을 일으킴)
- 창업교육방법
- 여성창업자

창업지원제도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창업에는 공익적인 측면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정부에서는 지원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사실 창업지원제도는 자본주의적 인 경제 체제를 가진 대부분의 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86년부터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라 창업지원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자금, 절차간소화, 세금감면, 사업성 평가 등으로 다양하다. 이들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하고자 한다.

지원대상: 지원대상으로서 자격을 갖추려면 제조업 및 정보 서비스산업 분야의 창업이어야 한다. 이것은 제조업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인



제2창업 5주년기념

것을 약속한 용자와는 완전히 달랐다. 본인도 잘 아는 분야를 중심으로 창업의 이익금에 대한 배당을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자금의 투입이다. 창업투자회사는 벤처 캐피탈 회사(venture capital company)의 한 형태인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현재 50여개의 창업투자회사가 설립되어 있다. 설립 초기인 1980년대 말에는 활발하였으나 최근의 경기침체와 함께 활동이 다소 저조해져서 활성과 방만을 다각도에서 연구하고 있다. 절차간소화: 기업을 창업하는 데는 여러가지 인허가 사항 때문에 행정적으로 복잡한 경우가 있다. 사소해 보이는 절차도 창업자에게는 부담이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간소화하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특히, 기술집약형 창업, 농어촌지역 창업에 대해서는 시군구의 창업지원 창구에서 절차간소화 업무 지원하고 있다.

성공적인 창업을 위해서는 무엇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앞에서는 창업에 대한 이론적, 제도적인 측면에 대하여 설명하였는데 여기에서는 창업에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실제적인 요령을 몇가지 제언하고자 한다.

사업기회의 포착: 사업의 시발점은 성공가능성이 높은 사업기회를 포착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옛날에도 어려웠겠지만, 현대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경쟁이 치열한 경우에는 유망한 사업기회를 포착하기란 정말 어렵다. 다음과 같은 요령들이 사업기회 포착에 도움이 될 것이다.

기업가 정신의 혁신 ... 경제발전의 원동력
사업기회 포착·자금조달 등 실제내용준비가 성공률 높여

창업은 경제 발전에 대단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기술을 기업화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다. 기술창업의 한 형태가 벤처 비즈니스(venture business)인 것이다. 사실 현대 사회에서 기술은 기업과 연결될 때 결실을 보게되는 것이다. 창업강좌를 영어로는 entrepreneurship course라고 하는데 직역하면 '기업가정신 과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의외하지만 '창업론'과 '창업' 정도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에도 창업강좌를 개설하는 유명대학들이 생기고 있다. 등록

Advertisement for Samsung mobile phones. Features include SRP-3300N, SRP-3300, and SH-400. Text: '대학인의 필수품 "삐삐"', '다정한 연인에게 "사랑의 오작교"', '아르바이트 동반자 "리쿠르트"', '캠팩스를 누비는 "긴급호출"', '신용판매', '친절과 신용의 삼성 무선기기 대리점', '유통 전자', '277-6300, 278-3536'.

Advertisement for various educational courses. Includes '7-9급 공무원', '행정학원', '외국어강좌', '공인회계사', '법률특강', '유치당교재학원', '유치당 전과지식 및 교재 구입', '다산학개론', '다산학개론', '다산학개론'.

Advertisement for '권아리' (Kwon Ari) featuring dance and social activities. Text: '5월의 마지막 축제', 'Dance with her', '5/29, 3 PM, 10/10/10', '568-3322', '이익원'.

영화평 — 북한영화 '새'

# 새를 통해 민족분단 비극·통일 염원 그려

## 이북자연환경 그대로 살려 두동강 난 조국 실감 올바른 역사인식... 예술작품 금지의 벽 해소

'월계'의 기미가 안보이는 국 가보안법이 존재하는 가운데 이북의 문화예술작품을 평하여 공론지에 내놓는 일은 이남의 어느 누구에게도 참으로 부담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필자는 사상과 체제가 다른 곳의 작품이라는 편견을 버리고 작품의도와 구성이 어떠한 형상화로 구체화 되어 무엇을 시사하려 하는가에 대해 객관적으로, 대신 이북의 작품이 우리가 염원하는 통일과 민족의 이익에 부합하는 측면에 대해서는 비판보다는 칭찬에 인색하지 않으려 한다.

이러한 주제의식은 전체적인 흐름속에서 반영되어 있는데 몇몇 장면구성에 의해 더욱더 부각되어진다.

우선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가보고 싶은 곳에 대한 열망을 갖게한다. 작품의 배경이 이북의 자연환경을 그대로 살리고 있어 조국의 공간적 실체가 뚜렷이 두개로 나뉘어져 있음을 확연히 하고 있다. 더욱이 이러한 표현은 자연의 서정성을 갖아가다가 38도 군사분계선에 막혀 더이상 가지못해 안타까워하는 아버지의 얼굴에서도 만날 수 있다.

다음으로는 '반드시 만나야 하는 사람들'에 대한 애절한 표현이다. 원박사가 세계 조류 학술포럼에 참가하기전 잠을 뒤척이다 꾸겨지는 아들 상봉의 꿈은 외세로 인한 분단 이산가족이 만나야 한다는 7천만 겨레의 절실한 요구를 담고있으며 동일한 언어와 생활상으로 비추어지는 이북 인민 배우들의 연기속에서 조국의 인격적 실체인 민족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진한 민족애의 정서를 갖게한다.



◁새를 통해 민족분단의 아픔을 그린 이 영화가 일남상영이 될지 주목된다.

이 원칙이 존중되는 내용이라면 우리 국민 모두에게 보여 줘야 하며 이 원칙을 이행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우리들의 바람이다. 지난해 12월경에 원박(원)교수와 이장호 감독이 이영화의 수입과 국내 상영을 시도했지만 이북 예술작품 금지의 벽을 넘지 못했다.

이것을 문헌정부가 해결해 줄 것인가? 책임있는 관료자가 분단 49년의 역사를 올바르게 깨닫고 그속에서 자유로워 지려면 불가능할 것이다.

박재원 <불교대 인철 93졸>

### 대학교육의 본질

3 창 4 <상경대 경영학과 교수>



대학을 흔히들 자유·낭만·진리·탐구의 장이라고 한다. 그러나 대학 본연의 모습은 진리탐구로 두말 할 나위없이, 대학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는 창의적인 사고를 훈련하는 데 있다. 창의력을 훈련하는 전제조건은 모험정신이며, 모험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경우에만 시도될 수 있다.

또한 산업 세계에서 창조에 이르는 상상력은 '하던 된다'는 신념과 자세 그리고 의지에서 발휘된다. 그것은 결코 천재성을 요하지 않으며 법제(凡才) 수준에서도 가능하다고 한다. 여기에서 우리는 공통된 사실을 쉽게 발견해 낼 수가 있다. 그것은 대학에 재학중인 학생들에게서나 기업체에 몸담고 있는 회사원들에게서나 전공분야와 주어진 업무에 있어서 불가능한 것 또는 내 능력에서 벗어 나는 것으로 알고 이에 노력조와 포기해 버린다면 그것은 사회를 위해서나 자신을 위해서 큰 과오가 될 것이며 이것은 결국 창의력과 상상력 발현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인 것이다. 상상력이 창조로 연결되는 세계는 분명히 목표의식과 줄기찬 노력의 계속되고 있다. 인간의 창조 활동은 크게 두 단계로 나뉘어 첫 단계는 창조적 발상이 결정되고 문제가 정의되는 단계이며 다음은 이렇게 정의된 문제를 풀아가는 단계라고 한다. 풀림의 비스의 계란도 풀린 뒤에 살펴보니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콜럼버스의 계란 뒤에는 신비나 불가사의는 없다. 오직 남다른 자세와 의지가 있었을 뿐이었다. 오늘날 우리는 대학 교육의 위기를 깨닫고 있다. 지금껏 매스컴에서 대서특필된 임시부정등과 같은 유형의 사건이, 교

수채용에서의 비리가 그리고 또 다른 무엇이 있지나 않은가 하는 의구심들이 대학 본연의 임무인 학생들의 창의력 배양을 가로 막고 있다. 며칠전 신문에 보도된 한국인의 삶의 질은 세계 1백42개 나라중에서 33번째로 높다고 한다. 그 기준이 되는 것은 수명과 교육 그리고 구매력이었다고 한다.

과연 오늘날 우리 대학들이 제공하고 있는 교육 현실이 실제로 그와같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아마 그 기준은 어머니의 품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할 창의력의 교육이 아닌, 대학을 보내야겠다는 우리 국민들의 교육열에 대한 평가로 볼이 더욱 타당하리라는 생각이 든다. 과거 70년대초 부터 오늘날까지 21세기를 향한 중요한 시기에 우리 대학은 진리탐구의 정으로선 순수한 창의력과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이 대내·외적으로 성숙 될 수가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미래 지향적 대학, 21세기를 대비한 바람직한 대학위상의 재정립이라는 생각은 업무도 내지 못하고 현실 문제의 해결에만 급급하며 근시안적 대안들만이 제시 됨으로써 이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제공되어야 할 창의력과 상상력의 장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

창의력과 상상력 그것은 대학이 마땅히 학생들에게 제공해야하고 학생들은 당연히 그것을 찾아갈 수 있어야 한다. 많은 기업들이 고객만족 경영을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주요 경영정책으로 채택하여 운영하고 있다. 대학도 이제는 주요 고객인 동문, 재학생, 학부모에게 이제는 만족을 주어야 한다. 고객만족은 기업에서 뿐만 아니라 대학에 있어서도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새롭게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이제부터라도 학생들은 순수하게 전공학문에 있어서 창의력과 상상력을 맘껏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문단의 베아리

## 유식학—심체·심작용의 세밀한 분석 대승적 유심·연기사상과 일맥상통



유식학 입문 <불광출판부 6전월>

불교는 유심사상에 입각하여 교리를 대부분 설명한다. 모든 것은 마음을 떠나 존재할 수 없다는 사상을 기초로 하여 심체와 심작용을 설명하고 정신과 물질과의 관계도 서로 불가분리하다는 사상을 설명하고 있다.

정신과 물질이 서로 평등한 관계를 갖고 있으면서 모든 것을 인식하고 판단하며, 선과 악을 나타내는 주체는 정신이기 때문에 모든 것의 주인공은 마음인 것이다.

원시불교시대부터 마음을 중심하여 모든 사물의 인연관계를 설명하였고, 소승불교에서도 마음의 심오함을 해설하고 나아가서 물질계와도 관련시켜 진실하게 설명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리고 대승불교에서도 소승불교의 교리를 확신하고 보다 대승적으로 설명하려 노력해 왔다.

그 결과 유식학이라는 학문이 성립하게 되었다.

불교의 여러학설 가운데 가장 이론적이고 체계적인 유식학은 마음의 체성과 작용의 작용을 낱말로 분석하여 인간의 정신생활을 보다 자세히 설명하고 있

다. 유식학은 오늘날의 심리학이나 인성론과 비슷하다고 해서 불교의 심리학 또는 사물과 사물을 인지하는 주체자의 관계를 유심의 도리와 연기법으로 탁월하게 해명해 준다.

이와같이 유식학은 옛부터 마음의 체성과 작용을 이해하는 학문으로 인정돼 체성과 작용을 이해하는 학문으로 인정되어 왔

### 문화단신

#### 새로 나온 책

◁삼다도...제주도의 아름다운 풍경을 제주도민의 생활과 조화시켜 서술한 정인수시인의 시집, 아내를 위한 단장, 심장생도 등 연작시와 서정시 등이 수록되어 있다. (한국시인선·2천8백원)

공연안내

▷택시! 택시!...경주캠퍼스 동국연극회 제25회 정기공연, 택시안에서 일어나는 여러가지 사건을 무대에 올려 다양한 계층들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시대적 좌와상을 그려나간다. 6월2일부터 3일까지 오후2시, 5시, 원효관 소강당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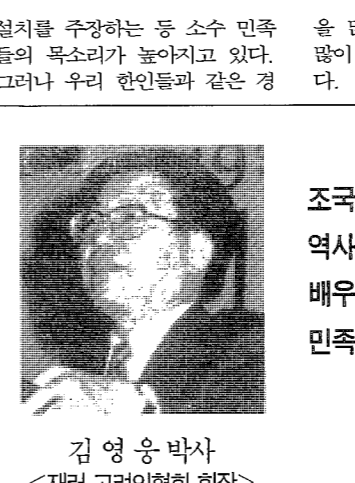
▷금관의 예수...경주캠퍼스 한의대 극단 '베오라지'에서는 부활하는 예수를 부활할 수 밖에 없는 사회를 비판하는 내용을 갖고 제 9회 워드 샵 공연을 한다. 5월25일부터 26일까지 2시, 5시 원효관 소강당1.

## ◇재 러시아 고려인협회 회장 김영웅 박사를 만나 우리민족 동질성 회복위한 문화발전 시급 러시아 개방후 한인 문제의 실질방도 기대

소련연방 인민대표 대의원이며 재러시아 고려인협회 회장으로 있는 김영웅 박사 초청강연회가 지난 17일 숭실대학교 사회봉사관 1층 백마당홀에서 열렸다.

숭실대학신문사 주최로 열린 이번 강연회는 러시아 페레스트로이카의 실상과 한민족의 장래란 주제로 2시간 동안 진행됐다.

이에 페레스트로이카의 가장 큰 장점은 "이로인해 재러시아 동포들이 이렇게 모국을 방문할 수 있게 된 것이 아니겠냐"고 말하는 김영웅 박사를 만나 러시아 한인들의 생활에 대해 들어 본다.



김영웅 박사 <재러 고려인협회 회장>

—한인들과 같은 소수민족에 대한 러시아의 정책적 배려는, =법률상으로는 북방의 몇몇 소수민족의 사회·경제 개발을 위한 항목만 있을뿐 그의 다른 소수민족에 대해서는 나타나지는 않았다.

—러시아가 한인들의 나아갈 바는, =얼마전 있었던 러시아 내 한인 대표자 회의에서 그런 것

을 많이 느꼈는데 우리민족이 많이 이질화 돼가고 있는 것 같다. 이것은 조국의 역사·언어·민족의 이질화가 가장 큰 문제다. 특히 모국어를 공부하는데 있어서는 한국정부에서 교육관을 파급하고 교재를 보내주는 등의 노력을 보여주고 있으나 신조어들을 배우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러시아 한인들은 일제때 강제 이주당한 사람들이 대부분으로 알고있는데 이들이 모국으로 돌아오는 것에 대한 의견은, =개인이자로는 반대의 입장이다. 그들은 그곳에서 이미 50~60년 동안 살아왔으며 이주를 원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국가의 연금을 받고 생활하는 노인들이어서 이들이 모국에서 생활한다고 했을때 당장 생계를 꾸려나갈 것 부터가 문제다.

—마지막으로 바라는 점이나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러시아가 개방된 후 정상급 회담을 비롯하여 많은 정치적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자리가 있을때마다 재러시아 한인들 문제가 많이 거론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東>

새로운세대 나의음

HAITAI MELON JUICE

“고급과일-메론”  
메론과즙으로 만들었습니다

미실수록 싱그러운 메론쥬스, 해태전원메론  
해태에서 새로나온 전원메론—  
그 맛하며, 그 향기하며  
만 음료와는 정말 다른 거 있죠.  
어떻게 다르냐구요?  
한마디로, 색깔부터 달라요.  
해태 전원메론—  
지금 한번 마셔보세요!

해태  
田園메론

색깔부터 달라요

HAITAI MELON JUICE

원인으로 가족건강 나리건강

# 대학팀 최초 에베레스트산 정상등정 하산도중 안전삽, 남원우 대원 실족사

단일 대학산악부팀으로는 국내 최초로 지난 16일 세계최고봉 에베레스트산(8천8백48m) 정상에 성공한 본교 에베레스트 원정대가 하산도중 안전삽(제4)군과 남원우(경88졸)등등 2명이 추락사하는 참변을 당했다.

지난해 3월11일 이인정(상학 72졸·대학산악연맹회장)등본을 단장으로 총8명으로 구성된 대원팀이 히말라야산맥 최대산악인 에베레스트산 남서쪽 등정을 시도해 지난 4월 말 8천3백m까지 접근했으나 10일간 이어지는 폭설등 악화된 기상조건으로 일부 대원팀인 남동릉루트로 산회 정상공격을 노렸다.

이후 지난 16일 새벽 정상공격을 위해 제4경(8천40m)를 떠난 정상공격정원대 박정식(제90졸) 등남대장과 안전삽(제4), 김대권(전기4)군등 3명은 같은 날 오전 11시40분경 정상등정에 성공했다.

정상등정후 하산하던 이들 대원중 안근이 오후 9시경 8천1백m지점으로 추락되는 곳에서 실족 추락사했다.

같은 사고가 난 이틀남긴 지난 17일 사고소식을 접한 남

원우등본은 안근의 사신운반을 돕기위해 제2경(6천5백m)에서 제3경으로 이동하던 중 실족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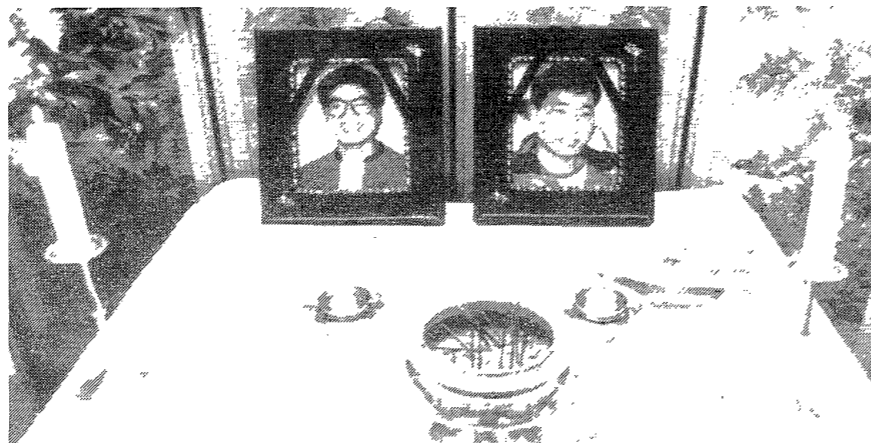
산악부측이 추정하고 있는 바에 따르면 제2경과 제3경 사이 넓은 크레바스(빙하절벽)지대가 자리하고 있는 겸에 미루어 이점점에서 추락사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확실한 경위가 밝혀지지 않고 있으며 사실도 아직 불확실했다.

현지연락에 따르면 안근의 사신은 지난 21일 헬기편으로 카투만도로 옮겨졌으며 나머지 대원은 22일 철수를 시작해 25일 카투만도로 무사히 집결했다고 전해졌다.

또한 오는 6월2일에는 안근의 사신과 대원들이 서울로 귀국할 예정이며 안근의 장례식은 총학생회에서 학생장으로 치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17일 대학산악부 최초의 에베레스트산 등정소식에 기해하던 지난 18일 사고소식을 접한 산악부는 산악부실(도서관 지하)에 안근과 남원우의 분향사를 마련하고 이들을 추모했다.

한편 이번에 남동릉루트로 등정에 성공한 에베레스트산 원정대는 지난 91년에도 남서쪽 등



에베레스트산 등정에 성공한 뒤 하산도중 추락사한 안근군과 남원우 등본의 분향소가 산악부실에 마련됐다.

정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 행정대학원 강연회 개최

행정대학원(원장·유광진·정치외교학)에서는 오는 6월1일 오후 7시 동국대 학생식당에서 '행정학의 동향'을 주제로 강연회를 개최한다.

강연자는 김재용·한양대 총학생회장 이하 한총련은 '전두환·노태우 체제 선봉대'를 결성하고 지난 18일

## 광주학살 책임자 처벌 결의대회

### 정부의 기만적 대응태도 규탄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의장·김재용·한양대 총학생회장 이하 한총련)은 '전두환·노태우 체제 선봉대'를 결성하고 지난 18일

## ◆ 취재낙수— '93 임석민주 대동제를 마치고

# 주점마다 '만원' 기획행사장 '썰렁' 보다 다양한 화합의 장 마련 아쉬워

○경주캠퍼스 93 임석민주 대동제가 총학생회(회장·정순현·경영4)주최로 지난 22일부터 15일 4일간 교내일원에서 열렸다.

이번 대동제는 항상 문제로 제기돼온 '주(酒)'제의 이미지를 벗어나 크게 하나됨을 의미하는 대동제의 본 취지를 살리고자 하는 노력들이 엿보였다.

그러나 대동제 기간중 학내 곳곳에서는 불법주점의 난립과 외부 잠수입들의 개입등으로 예전의 활력적 대동제의 모습에서 크게 벗어나진 못했다. 평가나 또한 경주캠퍼스 전인구에서 보면 약간씩 개선부족한 문제와 경주지역 내 학내 일각에서 대동제 기간중 벌어지던 불법주점의 난립이 주(酒)제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역할을 했었다.

○행사 첫날인 준비하는 날(22일) 오후 3시에 있었던 민주국인회의 대동제 주관 '통영오광대놀이'는 우리것을 찾는 대동제의 또다른 의미를 살린 유익한 행사였다는 평가. 교내 사기

리를 메운 1백여명의 학생들은 흥겨운 우리것을 즐기며 대동제의 시작을 맞이했다.

○하나는 날(23일)은 하루 전날 내린 비로 오전 11시부터 총학주최로 문화거리에서 실시된 대동제 개막식과 맞물려 대동제의 의미를 높이기 위해 한편 오후 1시부터 원효관 중정에서는 K-U.S.A 주관 '전통문화가 50여명의 학생·교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진행됐다.

직전까지 연례적으로 경주항교에서 실시된 전통문화는 녹아들지 못한 채로 아쉬움이 남는다. 또한 경주캠퍼스 전인구에서 보면 약간씩 개선부족한 문제와 경주지역 내 학내 일각에서 대동제 기간중 벌어지던 불법주점의 난립이 주(酒)제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역할을 했었다.

○행사 첫날인 준비하는 날(22일) 오후 3시에 있었던 민주국인회의 대동제 주관 '통영오광대놀이'는 우리것을 찾는 대동제의 또다른 의미를 살린 유익한 행사였다는 평가. 교내 사기

를 진솔하게 풀어본 이번 공연은 자칫 비판해가는 대동제의 유흥·오락적 성격에서 벗어나 의의 있는 대동제문화조성의 새로운 시도로 한층깊이 생각할 수 있었던 자리였다는 반응. 한편 우천으로 하루 연기된 동아리연합회(회장·이정현·경영4) 주최 '동아리 해방가' 오후 8시부터 녹아들지 못했다.

3백여명의 많은 학생들이 지켜본 해방가는 그러나, 시간관계로 6개 동아리의 공연이 빠지고 '불꽃'의 '불꽃과 정경', '우리옷 선비' 등이 준비미흡으로 실시되지 못했으며 정열공연단의 이어공연도 중 무대가 내려앉는 등 행사진행의 유엔진이 아쉬웠던 자리였다는 증언.

○민주총리의 날(25일)은 총학생회 주최로 오후 6시부터 대동제의 마지막 행사인 백성연이 문주관에서 열렸다.

민주총리운동연합산하 '몸짓'에 '해방'과 '포항지역 노동자 노래' '소리' 공연이 펼쳐졌다. 지난 과거 빼앗긴 치욕의 역사

는 타지역 극렬연(?)들의 인종은 모습이 눈에 띄어 기성 공연대들을 받게 해주는 학생들의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이밖에도 각 학교별로 실시하는 학술제와 상경대주관 '전교총 물품판매' 및 '우리 밀' 등 대동제 기간중 실시된 행사와 학생들의 인식부족으로 주점거리에서 잦은 마찰을 빚는 부작용을 연출.

이번 대동제는 우천등의 악재가 겹쳐지지만 큰 기획행사가 대부분 예년과 비교해 달라진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으며 아쉬움이 남는다. 대동제의 마지막 행사인 백성연이 문주관에서 열렸다.

민주총리운동연합산하 '몸짓'에 '해방'과 '포항지역 노동자 노래' '소리' 공연이 펼쳐졌다. 지난 과거 빼앗긴 치욕의 역사

- 1) 사랑과 우정의 공동점 - 직접 빠져보지 않는 것은 결코 배울 수 없다
- 2) 입학식날과 졸업식날 똑같은 사람으로부터 꽃다발을 받았다 나는 사랑에 성공한 걸까? 실패한 걸까?
- 3) 벗별을 수경해도 A 학원이 안 나오는 과목 - 사랑
- 4) 남자에게 먼저 여자 오라고 했었다. 여자는 남자의 내일을 꿈꿔 생각했다
- 5) 보이 날면 먼 곳에 있는 사랑을 발견한다. 낯가 날면 내 고향에서 사랑을 만다
- 6) 남자는 오래된 공동점과 같이 너무 말라붙은 오히려 의심스럽고, 여자는 보석과 같이 희귀 있으면 그 값어치가 크면 된다
- 7)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친구가 친해졌었다. 여자, 남자 사이에서 인기있는 여자가 친해졌었다. 여자 - 그러나 이성으로부터 좋은 친구를 받지 못하는 것은 왜일까?
- 8) 가장 아름다운 처녀는 특별한 시간, 그리고 하얀 턱수염 한 줄
- 9) 가장 아름답고 촉촉한 눈물은 실패는 젊은 날 오자 사랑의 실패
- 10) 영시의에서도, 도식에서도 배울 수 없다 - 사랑
- 11) 사랑이란 길은 3가지 중상 - 1) 학생을 만났다. 그냥 웃음이 나온다. 몸무게와 같이 준다. 아무도 알아도 연락이 생기는 것이다
- 12) 사랑하는 사람은 아기를 하지는 않는데 왜 아이를 낳고 싶어하는 걸까? 정말 사랑한다면 아이를 낳고 싶어하지 않는다
- 13) 사랑하는 사람은 아기를 하지는 않는데 왜 아이를 낳고 싶어하는 걸까? 정말 사랑한다면 아이를 낳고 싶어하지 않는다
- 14) 사랑하는 사람은 아기를 하지는 않는데 왜 아이를 낳고 싶어하는 걸까? 정말 사랑한다면 아이를 낳고 싶어하지 않는다
- 15) 사랑하는 사람은 아기를 하지는 않는데 왜 아이를 낳고 싶어하는 걸까? 정말 사랑한다면 아이를 낳고 싶어하지 않는다

- 16) 이 세상 실패한 사랑이란 없다. 다만 아직 성공하지 못한 사랑이 있을 뿐이다
- 17) 다정한 언어와 세련된 언어는 다르다. 언어는 마음을 나타내는 것이지만 사랑은 마음의 언어를 나타내는 것이다
- 18) 사랑이란 길은 3가지 중상 - 1) 학생을 만났다. 그냥 웃음이 나온다. 몸무게와 같이 준다. 아무도 알아도 연락이 생기는 것이다
- 19) 사랑하는 사람은 아기를 하지는 않는데 왜 아이를 낳고 싶어하는 걸까? 정말 사랑한다면 아이를 낳고 싶어하지 않는다
- 20) 사랑하는 사람은 아기를 하지는 않는데 왜 아이를 낳고 싶어하는 걸까? 정말 사랑한다면 아이를 낳고 싶어하지 않는다
- 21) 사랑하는 사람은 아기를 하지는 않는데 왜 아이를 낳고 싶어하는 걸까? 정말 사랑한다면 아이를 낳고 싶어하지 않는다
- 22) 사랑하는 사람은 아기를 하지는 않는데 왜 아이를 낳고 싶어하는 걸까? 정말 사랑한다면 아이를 낳고 싶어하지 않는다
- 23) 사랑하는 사람은 아기를 하지는 않는데 왜 아이를 낳고 싶어하는 걸까? 정말 사랑한다면 아이를 낳고 싶어하지 않는다
- 24) 사랑하는 사람은 아기를 하지는 않는데 왜 아이를 낳고 싶어하는 걸까? 정말 사랑한다면 아이를 낳고 싶어하지 않는다
- 25) 사랑하는 사람은 아기를 하지는 않는데 왜 아이를 낳고 싶어하는 걸까? 정말 사랑한다면 아이를 낳고 싶어하지 않는다
- 26) 사랑하는 사람은 아기를 하지는 않는데 왜 아이를 낳고 싶어하는 걸까? 정말 사랑한다면 아이를 낳고 싶어하지 않는다
- 27) 사랑하는 사람은 아기를 하지는 않는데 왜 아이를 낳고 싶어하는 걸까? 정말 사랑한다면 아이를 낳고 싶어하지 않는다
- 28) 사랑하는 사람은 아기를 하지는 않는데 왜 아이를 낳고 싶어하는 걸까? 정말 사랑한다면 아이를 낳고 싶어하지 않는다
- 29) 사랑하는 사람은 아기를 하지는 않는데 왜 아이를 낳고 싶어하는 걸까? 정말 사랑한다면 아이를 낳고 싶어하지 않는다
- 30) 사랑하는 사람은 아기를 하지는 않는데 왜 아이를 낳고 싶어하는 걸까? 정말 사랑한다면 아이를 낳고 싶어하지 않는다
- 31) 사랑하는 사람은 아기를 하지는 않는데 왜 아이를 낳고 싶어하는 걸까? 정말 사랑한다면 아이를 낳고 싶어하지 않는다
- 32) 사랑하는 사람은 아기를 하지는 않는데 왜 아이를 낳고 싶어하는 걸까? 정말 사랑한다면 아이를 낳고 싶어하지 않는다
- 33) 사랑하는 사람은 아기를 하지는 않는데 왜 아이를 낳고 싶어하는 걸까? 정말 사랑한다면 아이를 낳고 싶어하지 않는다
- 34) 사랑하는 사람은 아기를 하지는 않는데 왜 아이를 낳고 싶어하는 걸까? 정말 사랑한다면 아이를 낳고 싶어하지 않는다
- 35) 사랑하는 사람은 아기를 하지는 않는데 왜 아이를 낳고 싶어하는 걸까? 정말 사랑한다면 아이를 낳고 싶어하지 않는다

## 총동창회 제55차 정기이사회 열려 차기 회장에 황명수씨 선출

총동창회(회장·정재철·정치 52졸)는 지난 18일 오후 7시 엠베스티 호텔(시공)에서 제55차 정기이사회를 열고 차기총동창회 회장에 황명수(정치53졸)를 선출하는 등 93년 사업계획을 결의했다.

안건논의에 앞서 열린 동국대 53년 창립 40주년 기념식에서는 민주당 중앙상무위원회의장을 맡고 있는 정재철회장과 의환은행장 김계기(경제 60졸) 등본, 제27회 위무고시 수석합격자 황남기(인건90졸)등본등 12명이 상을 수상했다.

이날 안건 논의에서는 92년 감사보고서와 결산보고서가 있었고, 93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의결이 계속됐다.

이날 논의의결된 93년도 총동창회 주요사업계획은 크게 3가지로 △총동창회 지명운영기반 확대를 위한 자구책 마련 △회원발달을 통한 조직강화 △총동창회지명사업에 관한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한편 이날 임원개선에 있어서는 전현위원에 의한 후보 추천이후 선출하는 방식에 의해 차기 총동창회장에 황명수(정치53졸)를 선출하는 등 93년 사업계획을 결의했다.

안건논의에 앞서 열린 동국대 53년 창립 40주년 기념식에서는 민주당 중앙상무위원회의장을 맡고 있는 정재철회장과 의환은행장 김계기(경제 60졸) 등본, 제27회 위무고시 수석합격자 황남기(인건90졸)등본등 12명이 상을 수상했다.

이날 안건 논의에서는 92년 감사보고서와 결산보고서가 있었고, 93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의결이 계속됐다.

이날 논의의결된 93년도 총동창회 주요사업계획은 크게 3가지로 △총동창회 지명운영기반 확대를 위한 자구책 마련 △회원발달을 통한 조직강화 △총동창회지명사업에 관한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한편 이날 임원개선에 있어서는 전현위원에 의한 후보 추천이후 선출하는 방식에 의해 차기 총동창회장에 황명수(정치53졸)를 선출하는 등 93년 사업계획을 결의했다.

## HITE

크라운 60년에 드리는 해가의 60가지 사랑이야기 - 순수한 젊음, 순수한 사랑. 젊음의 아름다운 이야기속에 크라운 맥주가 있습니다.

## 문과대 '만남학교' 개최 학생회·학생간 신뢰 강화위해

문과대학생회(회장·이영주·사 4)에서 학생회 집중사업으로 '만남학교'를 열었다.

만남학교는 설문조사와 개인 면담을 통한 기초조사를 토대로 각각의 주제를 설정하여 4차에 걸쳐 진행된다.

각 만남학교는 성격에 따라 이름을 달리 짓고 부제를 정하여 토론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난달 22일에 있었던 제1차 만남학교는 '처음처럼 다시 함께'라는 부제를 정하고 각과 선진배우가 주제가 되어 선진배우와의 만남을 주제로 하여 토론을 벌였다.

제2차는 지난 6일에 열린 '문과대'라는 부제를 정하고 '대중문화와 대중에 대해'라는 주제로 토론을 벌였다.

제3차는 연애특강으로 지난 12일에, '그대와 함께 하는 사랑'을 주제로 토론을 벌였다.

이날 만남학교는 '처음처럼 다시 함께'라는 부제를 정하고 각과 선진배우가 주제가 되어 선진배우와의 만남을 주제로 하여 토론을 벌였다.

제2차는 지난 6일에 열린 '문과대'라는 부제를 정하고 '대중문화와 대중에 대해'라는 주제로 토론을 벌였다.

제3차는 연애특강으로 지난 12일에, '그대와 함께 하는 사랑'을 주제로 토론을 벌였다.

이날 만남학교는 '처음처럼 다시 함께'라는 부제를 정하고 각과 선진배우가 주제가 되어 선진배우와의 만남을 주제로 하여 토론을 벌였다.

## 세계대회 최종선발전 레슬링부 3명출전

93년 세계 아마추어 레슬링 선수권대회 과련선수 최종선발전에서 본교 레슬링부 3명이 진출했다.

2차선발전대회에서 자유형 57kg에서 1위를 한 김진학(체육 2), 자유형 48kg 2위 이재욱(경 영 1), 자유형 68kg 3위 김현수(회계3)등은 오는 7월 8일부터 용인삼성체육관에서 열리는 최종선발전에서 출전하게 된다.

## '참교육 실천 주간' 행사 사진전·물품판매등 다양하게 치뤄

삼남대학총동창회(회장·유치근·역 4)는 참교육 실천주간을 지난 17일부터 21일까지로 정하고 각 행사와 전시회를 개최했다.

전시행사는 학원관 1층 복도에서 삼남대 교육환경 사진전, 3층에서는 그림으로 보는 교육환경에 대한 참교육 물품판매를 중앙일원에서 했다.

이날 참교육 실천주간 행사로는

## 불교 문화연구원 세미나 뇌사인정 불교적 조명

살과 죽음의 갈림길인 뇌사인정 논란과 관련 불교 문화연구원에서는 지난 21일 '뇌사인정'을 주제로 불교적 조명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반재자로 나선 윤호진(경주캠퍼스·불교학) 교수는 서두에서 '조기불교의 사망관을 보면 죽음의 의미를 생각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연구실적에 입각해 뇌사인정 배척하는 것은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박선영(교육학)교수는 뇌사자의 장기이식에 대해 '죽

## 학과소식

**경제학과**  
전국대학교 연합대학 연합체육대회에 참가한다. 또한 오는 30일까지 소속지 '목말'의 원고를 모집한다.

**인문학과**  
과총동창회 총회가 지난 22일 동국대(L301)에서 1백20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신입회장에 오정수(인학)교수를 선출하고 축하연회를 가졌다.

**정보관리학과**  
오는 28일 국민대에서 열리는 경기지구 경영정보 연합회 체육대회에 참가한다. 또한 오는 30일까지 소속지 '목말'의 원고를 모집한다.

**일본 실화학부 불교 관계 조명 강연회**  
일본적 불교의정적 실화학부와의 관계 조명을 위한 강연회 및 본문화문화 불교라는 제목으로 대학원 불교학과, 국문과, 일본과 공동주최로 지난 19일 동국대(L306)에서 열렸다.

60  
1933-1993

지하 150미터의 100% 천연수소 만든 -  
**HAITE 맥주**



# 손수 번역·편집한 교재로 강의 쉽없는 연구 ... 포유동물학분야의 대가

농생물학과의 교수로 봉직하면서 장년을 마치시기까지 근무하셨던 퇴임교수는 원병회박사와 공태훈교수 두 분이 계셨고, 먼저 1982년 원교수께서 대학원교수로 만 70세가이 근무하시고 퇴임하셨던 원교수님을 중심으로 기업을 정리해 보려한다.

원교수님은 부친이시신 원홍구박사가 북한의 조류학자로서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었고 생존해 계셨으며, 경희대학교 생물학과 교수로 같은 분야에서 큰 업적을 쌓고 있었던 동생이시신 원병회박사와 함께 본국인 조국의 전형적 아들을 생각하시는 화제의 가족이기도 하다.

## 십의 뒤인길 ④

원병회 교수편

<약력>

1969년 3월~1982년 2월까지 본교 농생물학과 교수로 재직  
농림대학장, 1976년 국민훈장 동백장 수상



원박사님은 우리나라 포유동물학 분야의 대가로서, 특히, 설치류(쥐, 개구리)에 대한 분류, 생태학적 연구를 1930년대부터 중국인주위대와 한반도에서 일본의 세계적 포유동물학자인 구조다박사와 함께 1945년까지 수행해 왔으며, 1982년 본교를 떠나실 때까지 이 분야의 연구를 계속하시어, 한국동물도감(표유동물편)을 편찬하시고 이 분야의 귀중한 자료를 마련하셨다.

본인은 현재 농생물학과 교수인 생물관과에 1956년 입학하여 그 분야의 가르침을 받은 후 퇴임하신 때까지 같은 학교, 같은 과에서 스승으로 모시며 지금까지 가르치셨다. 또한 이 때 그 분야의 옛 발자취를 회고하면서 그렇게 많은 날들을 여기 동양에서 지냈고, 또 얼마남지 않은 날들을 더욱 뜻있게 보내야 하겠구나 생각하며 웃음을 여리게 된다.

원박사님은 철저한 교육자적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주어진 일들을 항상 최선을 다하여 수행해 가시는 것을 보아왔다. 1950년대에 참고할 책 하나도 없던 때, 제대로 없었던 그때 일본에서 새로 구입한 책들을 밤낮 연구실에서 손수 번역, 편집하시어 제대로 보이지도 않는 프린트물로 열심히 강의해 주시는 모습들이 기억되며, 매주 토요일마다 학교

에서 마련되는 트랙을 타고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야외채집을 실시했던 철저함이 생각난다. 그 당시 야외채집은 경기도 광릉에 있는 임업연구원에 많이 있었는데, 한번은 우리 학생들과 경희대학교 생물학과 학생들이 같은 채집목적으로 왔다가 싸움이 벌어져 우리를 인솔하셨던 만형 원교수와 경희대학교 학생들을 인솔했던 동생 원병회교수께서 서로 입장이 난처했던 경우도 있었다. 사실 토요일마다 야외 채집으로 기억되는 많은 추억거리라는 뜻밖의 모든 졸업생들의 아름다운 옛 이야기로 옛 스승을 모시는 자리에서 마다 화제가 되곤 한다.

1960년 후반에 비무장지대(DMZ) 생물조사기 다른 분야의 학자들과 같이 공동으로 이루어졌는데, 그곳에서 취를 잡아야 하는 우리 팀은 밤에 팔동하는 취를 채집하기 위해 "지뢰"가 매설되어 있는 위험지역을 군인들의 철저한 경호로 기어이 계획대로 실시하여 주위사람들을 놀라게 하기도 하였다.

원교수님은 말씀이 적으시며 행동이 적극적인이셔서 오늘의 일을 내일로 미루는 경우가 별로 없었던 것으로 기억되며, 낚시를 찍이나 좋아하시셔서 지금까지 계속하시고 계신다. 기억하기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

하고 연구실을 비우는 예는 별로 없으셨으며, 점심도 연구실에서 도시락이나 손수 마련하신 것들로 해결하셨다. 또한 모든 경우 자상한 말씀보다는 행동으로 바로 옮길 때가 대부분 이어서 미처 알지못한 경우 곁에 있던 사람도 오해할 때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아마도 이러한 선생님의 연구생활 모습들이 본인을 포함하여 우리 과의 교수들 모두 점심때만 도시락으로 함께 모여 즐거운 한 때를 갖게하는 동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된다.

이렇게 훌륭하게 교수생활을 끝내시고 정년으로 퇴임하신 후에는 야생동물연구 활동과, 취미를 즐기며 열심히 하시고, 건강관리를 잘 하시며, 스승의 날 제자들의 모임때마다 옛날 이야기로 웃음 피우며 즐거워하셨다. 그러나 지난 2월 갑작스럽게 쓰러지셔서 지금은 3개월째 집에서 요양하시며 며칠전에는 많이 회복되어도 도움은 받으실 집안을 가늠 수 있게 되시어 퍼 기뻐했다. 하루 속히 모두 회복하시어 제자들과 함께 예년처럼 늦게나마 기쁜 모임이 추진되길 간절히 기원한다.

이 해 풍

<농과대학 농생물학과 교수>

## ◆ 선배들의 대동제를 봅시다

### 대학내 상실된 민족정신 부활에 역점됨

군복무를 마치고 복학한 80년대 초기의 대학생들은 말 그대로 동토(凍土)였다. 교정에는 곳곳에 독사들의 경찰들이 상주하였고, 누군가의 단발머리 외침, 팔려가는 학생... 그 언저리에서 맨도는 다수의 침묵이 무겁게 깔려 있었다.

남란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대학 생활은 어수선했지만 왠지 허전했다. 생생파티, 불꽃놀이, 가수들의 공연 속에서 들떠있는 캠퍼스의 한쪽에서는 냉소적인 술자리가 벌어지게 마련 이었고, 가끔은 건장한 체격에 풍동이를 들고 있는 규태대(정확한 이름은 생각나지 않는다)에 의해 술판이 난장판이 되기도 했다. 그런데도 조용하게 축제는 막이 내렸다.

3학년으로 진급하던 84년 봄에 나는 후배들에게 떠밀려 학과의 학회장(현재의 과학생회장)이 되었다. 그에게는 시국관련 제작생들의 복고 조지를 시작으로 소위 개방적인 학원자율화의 조치가 취해지던 때였다. 5공 군사정권의 폭압정치에 벽에 부딪히자 제한된 범위에서나마 대학에서는 민주화의 열기가 일기 시작했다. 당시 학생자치기구였던 학도호국단은 학생들의 의사를 대변하기 보다는 오히려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었다. 그 해 유일초 민주화의 실천과 학도호국



◆대동제는 그시대 화노애락의 응집체였다.

단 케지, 총학생회 부활을 천명한 후 보가 제10대 학도호국단 총학생장 선 거에서 승리하였다. 그를 적극적으로 지지하였던 나에게 집행부의 일원이 되어달라는 권유가 들어왔다. 많은 고민을 거쳐 나는 마지막 학도호국단의 총무부장을 맡게 되었다.

여름방학 기간동안 집행부는 향후 사업계획을 준비하면서 매년 가을에 개최되던 백상체전을 단순한 체육행사 가 아니라, 당시 역사의 흐름을 반영하는 내용을 갖춘 명실상부한 지정 과 실천의 축제로서 치루기로 하였

다. 그때 결정된 백상민속체전은 나의 삶을 변화시킨 거대한 각양의 서곡이었다. 먼저 민속체전의 성격은 민족의 전통과 민중의 정서가 녹아들어 있는 전래민속놀이의 재현을 통해 서 그 당시 대학에서 상실된 민족정신을 되찾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우리는 개막식을 차진놀이로 시작하고 폐막식을 영산출타극과 뿔뿔제로 치루기로 하였다. 또한 민속체전의 내용을 보완하고 학생대중의 참여를 고양시키기 위해서 3일만에 걸쳐 초 청장편회를 개최하였다. 당시 반체제

인사로서 지목이 되었던 고은, 백기완, 여익구 세분의 강연회를 많은 학생들의 참여속에서 체육관을 뜨거운 열기로 가득 채웠다.

백상민속체전의 개막 두대의 차전을 앞세우고 백여개의 오색깃발이 폴폴 걸리면서 운동장은 함성으로 가득 찼다. 무언가에 위축되었던 학생들이 삼삼오오 운동장으로 몰려들었고 흡사 시골 국민학교 운동회를 연상시키는 바구니 터뜨리기, 진치기, 스크럼 부수기등에는 수백명이 어우러져 장관을 연출했다. 드디어 두마리의 거대한 용과 같은 영산출타극을 마치고 운동장으로 들어왔다.

한달만에 걸쳐 집단을 꼬아서 만든 영산출타극은 천여명 이상이 함께 들어야만 움직인다.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영산출타극의 실현을 위해서 기능 보유자인 박오용과 그분의 제자들이 약 열달간을 걸쳐 줄의 제작과 놀이의 진행을 지도하였다. 대운동장에 마주선 거대한 압수 두마리 용의 꿈틀거림에 스탠드에 앉아있던 많은 학생들이 운동장으로 뛰어들어 줄놀이 에 동참하였다. 본부석에 앉아있던 총장님과 교수님들이 운동장으로 나와 줄놀이에 참여하면서 그 열기가 한껏 고조되었다. 그야말로 대동제라는 말이 실감나는 한때였다. 그해 가을 영산출타극에서 모이진 열기로 우리는 그 다음해 봄에 학도호국단을 폐지하고 총학생회를 부활시켰다.

김 윤 길

<노동조합 사무국장  
국어국문학과 2학년>

## 생활문화운동 활성화 아쉬워

### 재활용차원에서 분리수거 생활화해야

오후가 되면 본교 커피 자판기 옆 쓰레기통엔 종이컵이 수북히 쌓인다. 학우들은 버리는 종이컵을 아까와 하면서도 쓰레기 분리수거함이 설치된 학생회관 로비까지 선택 가지 않는다. 또한 쓰레기 분리수거함에 컵을 넣은 학우들도 로비 구석에 가지런히 쌓인 종이컵에 한눈썹 의심의 눈길을 보낸 적이 있을 것이다.

한편 교정 곳곳에 설치된 폐건전지 수거함에도 과연 저속에 들어있는 폐건전지를 수거해 갈까 의심의 눈길을 보낸 학우들도 있을 것이다. 올해 생활문화운동의 일환으로 시작된 '폐건전지 수거'와 '쓰레기 분리수거'가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 제대로 실행되지 못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학부위와 학교의 협의 아래 환경보호단체 회사중 하나인 'M&E커뮤니케이션'이 본교에 폐건전지 수거함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한해도 수거해 가지 않는 등 전혀 후속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 또한 '쓰레기 분리수거' 문제도 이와 비슷한 상황에 놓여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는 '쓰레기 분리수거함'이 여러곳에 설치되어야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 학부위와 학교측은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는 실정이다.

다른 복지 부분에 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라며 학부위의 분리수거함 설치를 미루는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신영은 "지금의 생활문화운동은 과도기라고 생각한다. 학교에서 쓰레기 분리수거함을 설치하면 거기서 모인 쓰레기를 모아 자원재활용공사나 관련업체에 보내 현금 또는 재생유지로 받아 학생 복지에 힘써 생활문화운동을 활성화하겠다."고 앞으로의 계획을 말한다.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시작된 '폐건전지 수거'나 '쓰레기 분리수거'는 학우들의 관심속에 실행되고 있다. 그러나 관심에 비해 충분치 못한 분리수거함 때문에 많은 학우들은 안타까움 속에 쓰레기를 버리게 된다. 하루 빨리 '쓰레기 분리수거함'이 설치되어 환경오염방지뿐만 아니라 학우들의 복지 향상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

한편 복지 부분에 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라며 학부위의 분리수거함 설치를 미루는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신영은 "지금의 생활문화운동은 과도기라고 생각한다. 학교에서 쓰레기 분리수거함을 설치하면 거기서 모인 쓰레기를 모아 자원재활용공사나 관련업체에 보내 현금 또는 재생유지로 받아 학생 복지에 힘써 생활문화운동을 활성화하겠다."고 앞으로의 계획을 말한다.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시작된 '폐건전지 수거'나 '쓰레기 분리수거'는 학우들의 관심속에 실행되고 있다. 그러나 관심에 비해 충분치 못한 분리수거함 때문에 많은 학우들은 안타까움 속에 쓰레기를 버리게 된다. 하루 빨리 '쓰레기 분리수거함'이 설치되어 환경오염방지뿐만 아니라 학우들의 복지 향상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

## 문화단신

공연 안내

◇잡적/토크...극단 '한강'에서는 같은 주제를 가지고 서로 다르게 접근한 창작극 "잡적"과 "토크"를 하나로 묶어서 공연한다.

이 두작품 모두 "꿈을 잃어버린 사람은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린다. 5월27일부터 6월13일까지 오후 4시30분, 7시30분, 9시30분. 회화동 예술극장 "한마당". 극단 한강 831-6031

◇남사당의 하늘...우리나라 유일의 유랑예인 집단 남사당의 첫 여성 꼭두쇠인 바우타의 일생을 통해 그들의 사랑과 슬픔, 고통과 희망, 갈등과 절망 등 삶의 애환을 차분하게 그려 낸 대성작의 '남사당의 하늘'을 극단 미추가 공연한다. 6월18일부터 6월24일까지 오후 4시, 7시30분. 국립극장 대극장, 743-7828, 745-7828. 5월28일부터 6월28일까지 오후 4시30분, 7시30분. 바랑골 소극장(대학교로 소재) 745-0745

## 페어리

서양 철학의 철학자 몸젠(W. Mommsen)은 역사를 대하는 사람들에 대해 이런 비평을 던졌다. "역사는 당신들에게 더이상 자신이 만들어가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멀리 떨어진 맥락적 사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역사를 대하는 학회계급의 정서적 태도가 그들의 지위가 변해감에 따라 바뀌어온 사실(史實)을 반증하는 한 대목이다. 즉 몸젠의 말에 담긴 의미는 기득권층이 상승하던 시기에는 낙관주의적 역사관을 펴다가 전환적인 위기가 시작되면, 혹은 더 이상 전망을 갖지 못하는 체제에 대한 비판이 있게되면 사이비 역사이론과 은폐, 왜곡을 이용한 사이비 낙관주의적 역사이론이 자리하게 된다는 의미이다. ▲ 최후에 들어 국민들의 역사에 관한 관심의 형태가 많이 변화했다. 암묵적으로 기득권세력에 의해 은폐·왜곡 되어왔던 한국 근현대사의 재조명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한 것이다. 사실 을 알고싶어하는 호기심에서 뿐만 아니라 역사속에 숨겨져 있던 인물들을 다시 바라보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변화를 바라보며 우리는 한순간 비례를 맞보게 된다. 30년전이든 10년전이든 그 당시의 사건과 은폐된 일들을

선생의 의문사의 배경이나 유신독재 당시 김지하시인의 외로운 싸움들의 내용들을 이 프로그램들은 다루고 있다. 또한 이 두 가구는 10년전 대 조세형 사건을 다루면서 그 당시 기득권세력의 횡포와 뿌리를 서슴없이 캐내고 있다. ▲ 그러나 이러한 선사는 진실해기의 결말에 가서는 모두가 풀이 죽고 만다. 새롭게 접하는 근거를 통해 알맹이는 빠져버리고 없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다. 어느 주제하나 기득권세력에 대한 심판을 주지한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명확한-역사적 정황에 비추어고 장준하 선생의 의문사보에도 도 기득권 세력의 반론이 가능해 되는 것이다. 이런 실감은 아직 문인 시대의 역사관을 의심케 만들고 동시에 기득권세력의 연장선상에 놓여 있음을 절감하게 하는 일이다.

## 어설픈 왜곡

이제야 확인하게 되는 자체가 우리를 그렇게 만든다. 모든 역사의 주체가 돼야 했던 민중은 소외된 채 기득권층의 논리와 조작속에 순간의 역사가 왜곡됐다는 낭패감이 그것이다. ▲ 국민들의 관심만큼이나 요즘 언론매체들은 근·현대사를 '발굴'이라는 이름하에 더두어 신설 프로그램을 만들어 내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고 장준하



최경인 (23)



# 모든 코코스는 미도파가 직영합니다

• 동국대학교 개교87주년을 축하합니다.

## COCO'S

미도파가 직영하는 CALIFORNIA RESTAURANT

### 색다른 맛 저렴한 가격대 놀라운 경험!

비싸다고 최고급 레스토랑이 아닙니다.  
경제적인 가격, 실속있는 음식·코코스

## "COCO'S 에서 느끼는 여유로움"

사랑과 즐거움이 있는 곳 COCO'S 이제 멀리 가실 필요 없습니다. 가까운 곳에 있으니까요. 최고급 레스토랑의 맛과 서비스를 부담없는 저렴한 가격대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1년내내 휴일이 없는 COCO'S 정성과 자부심으로 만들어 내는 150여가지 ITEM의 다양한 메뉴가 항상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신사1호점	강남구 신사동 622 전화: 548-6904/5	대치2호점	강남구 대치동 1005 전화: 561-1112/3	석촌3호점	송파구 석촌동 158-4 전화: 419-2873/4	성내4호점	강동구 성내동 448-21 전화: 487-2473/4	방배5호점	서초구 서초동 1490-33 전화: 522-2527	미아6호점	도봉구 미아동 460-110 전화: 989-5492/3	서초7호점	서초구 서초동 1607-5 전화: 587-2178/9	양재9호점	서초구 양재동 2-3 전화: 579-7748/9
이수10호점	서초구 방배동 791-1 전화: 536-9677/8	수원11호점	수원시 인계동 1121-5 전화: (0331)33-4731/2	군자12호점	성동구 군자동 270 전화: 498-0728/9	주안13호점	인천 남구 주안동 1585 전화: (032)431-4408/9	상계14호점	노원구 상계동 713 전화: 952-0214	역삼15호점	강남구 역삼동 738-26 전화: 565-6094/5	신촌16호점	서대문구 청천동 31번지 전화: 365-3905	동교17호점	마포구 동교동 166-13 전화: 335-1874-5